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57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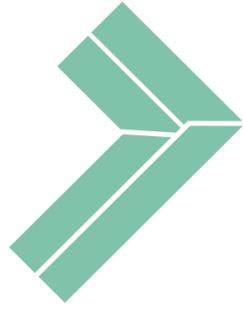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4
Korea Hanok
Competition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구나 누리의 힘에

누구나 누리는 힘



누구나 리더

한 우

진행과정

공모공지	2014. 5. 19
계획부문 워크숍	2014. 5. 29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준공·사진부문 (2014.7.28 - 8.1) 계획부문 (2014.8.28. - 9.2)
심사	준공부문(8.26), 사진부문(8.12) 계획부문(1차 9.4/ 2차 9.27)
시상식	2014.10.13.
전시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갤러리문 (2014.10.13. -10.19)

운영위원/ 심사위원

운영위원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이왕기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조한 교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이유직 교수	
	박영채건축사진스튜디오	박영채 대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심사위원	준공·계획부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김주원 교수
		건축사사무소 사무소효자동	서승모 소장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강영조 교수
사진부문	Project CH&F	진효숙 작가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남궁선스튜디오	남궁선 대표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의 공공건축물이 한옥이라면 어떨까? 현대건축에서 느끼는 정서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한옥은 건축물 자체가 살아 있다. 목재에서 느끼는 생명력, 흙으로 빚어 만든 기와에서 느끼는 순수함이 바로 한옥이다. 우리는 한옥을 만들지만 한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것이다. 먼 훗날 한옥을 보고 자란 세대는 분명 현대건축에서 생활한 우리와 다를 것이다.

한옥은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우리 건축이다. 그동안 한옥을 어쩔 수 없이 사는 집, 특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이라는 관념에서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우리 건축으로 바로 놓아야 한다. 건축물로서의 한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한옥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정서적 가치는 그 한옥의 경제적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한옥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경제적이고 간편하다는 현대건축에 익숙해지는 사이 우리의 정서는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부품화된 인간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옥을 통하여 건축이 인간에게 가져다줄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옥은 또한 도시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덮힌 도시사막에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의 현대건축 물결 속에서 한옥 공공건축물은 메마른 우리 정서의 청량제가 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한옥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이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건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례

진행과정/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차례	3
심사총평	4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2
올해의 한옥상	16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2
특별상	24
금상	26
은상	28
동상	30
입선	32
사진부문 청소년	
금상	40
특별상	42
은상	44
동상	46
입선	48
계획부문	
대상	54
특별상	58
금상	60
은상	62
동상	66
입선	72

운영위원장 심사평

지난 1,2,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한옥의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하여 한옥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14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이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항상 우리곁에 있는 친근한 건축이라는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아래 준공, 계획, 사진 총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획부문은 소주제로 누구나 누리는 ‘공공건축물’을 제시함으로써 한옥건축물의 공공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설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 한옥의 계획, 구조에 대한 응모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간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건축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진부문의 경우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공모하였으며, 공모접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응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으로는 전통건축분야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 현대건축분야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조한 교수, 조경분야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이유직 교수, 사진분야는 박영채건축사진스튜디오 박영채 대표, 공모전 진행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공모전의 주제, 대상, 일정, 공모지침, 심사위원 구성, 내년 공모전 운영방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였으며 더불어 공모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공모전 개최는 5월 19일에 공지하고 계획부문 워크숍은 5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준공·사진부문과 계획부문을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준공·사진부문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공모하여 준공부문 총 4작품(경기도 광주 및 서울 일대), 사진부문 총 790명(일반 678명, 청소년 112명)이 응모 하였습니다. 계획부문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공모하여 총 144명(대학생 129명, 일반 15명)이 응모 하였습니다. 심사는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부문의 경우 1차에 통과한 작품에 대하여 2차에서는 공개발표를 실시하여 각 작품의 계획의도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준공부문은 각 작품 별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공지하였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갤러리문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준공부문 3작품, 사진부문 39작품, 계획부문 18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한옥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한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 초기에는 한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서 점차 한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기본구조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려는 시도까지 보이는 발전된 공모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학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한옥을 좀더 살갑게 다가가는 친근한 우리건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전을 통해서도 한옥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우리건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 공모전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면 한옥의 대중적 접근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이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한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한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올해 한옥공모전을 위해 수고하신 운영위원, 심사위원, 공모전을 주최, 주관하신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심사평

2014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한옥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살림집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건축 및 역사·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안 되었습니다. 즉 다시금 한국적 공간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준공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가회동 “한경헌”은 현대한옥이 갖고 있는 재료와 구조 문제 등을 매우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좁은 대지 속에서 치밀하고 세심하게 공간을 구성하여 도시한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옥상을 받은 “가회동 성당 사랑채”는 현대건축 본당과 공간적으로 잘 연결시킨 일종의 파빌리온으로 가회동 거리풍경에 어울리는 공공성이 잘 드러난 한옥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두 한옥은 서울 북촌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자선당”은 600백년 전통의 종가집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한옥으로 공간과 형태 등 전통의 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8개가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모두의 사랑채, 국회의사당’은 한옥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장소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옥으로 풀어 낸 우수한 제안이었습니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반한옥’이란 제목의 도시 내 주민자치센터는 다소 실험적이기는 하나 도시와 사람을 한옥에 스며들게 하는 색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이외 금상인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전통시장 계획안, 은상인 대전정부청사 앞 버스정류장 계획안, 기존의 도시조직과 건축물의 증개축 제안, 그리고 동상인 세운상가와 종묘사이의 도심형 대안학교 계획안, 한옥박물관 계획, 나주읍성 주변의 다양한 공공 문화시설 제안 등 수상작은 한옥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설계방식으로 풀어낸 참신하고도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상의 8작품 외에 10개의 입선작도 나름대로 21세기 공공한옥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공모전이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한옥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21세기 우리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많은 창조적 고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옥을 너무 개념적으로만 접근하여 실질적인 한옥의 본질, 즉 목구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도면과 모형의 제시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면도와 같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도면 작성도 요구됩니다.

그간 한옥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제 5회 한옥공모전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만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사진부문 심사평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사진부문을 심사한 건축전문사진가 진효숙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사진부문에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다는 결과에 공모전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사진을 좋아하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작을 선정해야 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심과 높은 참여도는 즐거운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우리 심사위원들은 전문적인 건축사진가들로 구성이 되었기에 올해의 수상작들은 한옥에서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감동과 이야기 뿐만 아니라 공모전 주제에 맞추어 건축적, 공간적으로 얼마나 한옥을 아름답게 잘 바라보고 표현했는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한옥이 가지는 공간적 느낌, 건축으로 보여지는 매력, 재료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표현한 사진을 찾고자 했습니다. 응모한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많은 토론과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통해 입상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대상 수상작위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분의 대상 수상작품인 “자연과의 균형”의 특징은 한옥의 공간을 접했을 때 누구나 다가가서 들여다보고 많은 경우 잠깐 스쳐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구도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미에 대한 통찰과 좀 더 대상을 다양하게 들여다 보고자 하는 자세에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훑어보게 된다면 잘 보지 못할 수 있는 한옥의 지붕과 지붕아래 눈썹지붕, 그리고 돌담 위의 기와로 구성된 곳을 찾아내어 기와 지붕의 특징을 살려낼 수 있는 적절한 빛으로 잘 담아내었습니다. 청소년 부문의 수상작품들은 일반부와 비교했을 때도 그 내용과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많은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부문의 금상 수상작 “그 시간 속 지금”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한옥에서의 풍경을 적절한 구도로 잘 담아내었습니다. 열린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열린 공간을 향하는 한복을 입은 두 여인에 의해 시선의 자연스러운 유도를 해내었으며 안정적인 구도 또한 금상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응모한 작품들의 많은 수와 높은 수준속에서 입상을 하신 수상작품 작가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작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사진부문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사진공모전에 출품할 경우 나의 작품이 어느 공모전과 가장 그 성격이 맞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시어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출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건축 전문 사진작가의 입장에서 모든 수상하신 분들과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신 모든 분들이 계속 한옥의 건축적, 공간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 찍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부문 심사위원장 진효숙

PROJECT CH&F

준공부문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가회 한경헌 嘉會 翰耕軒

설계자 김형우
최홍중 건축동인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삼협종합건설(주)
금진E&C

건축주 신인숙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61번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77.30㎡

건축면적 46.36㎡

연면적 125.44㎡

지하1층 51.69㎡

지상1층 39.57㎡

2층 34.18㎡

건폐율 59.97%

용적률 95.40%

용도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가회동 도시형 한옥 문화복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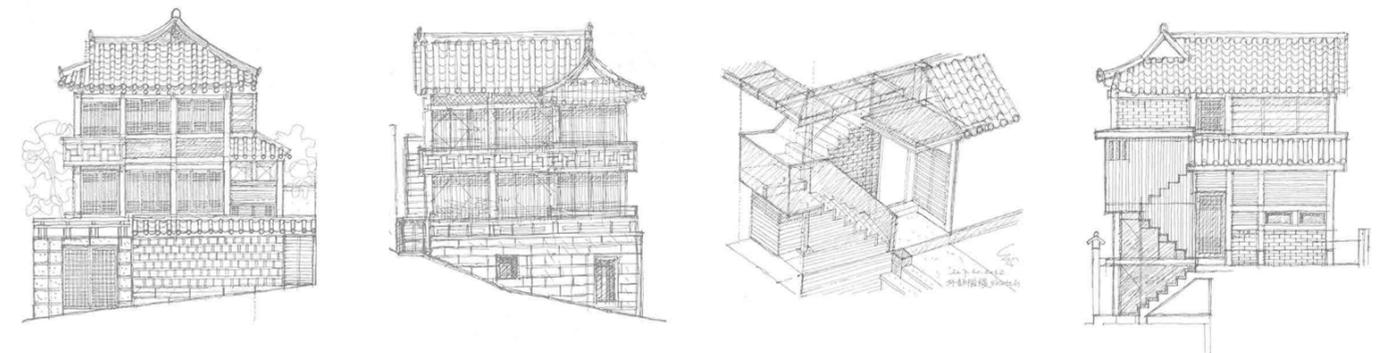
“글을 익히고 닦는 집”이라는 당호를 지닌 가회 한경헌은 유년기를 북촌에서 보낸 건축주의 독특한 자수를 기본으로 한 섬유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과 이를 지원하는 휴게공간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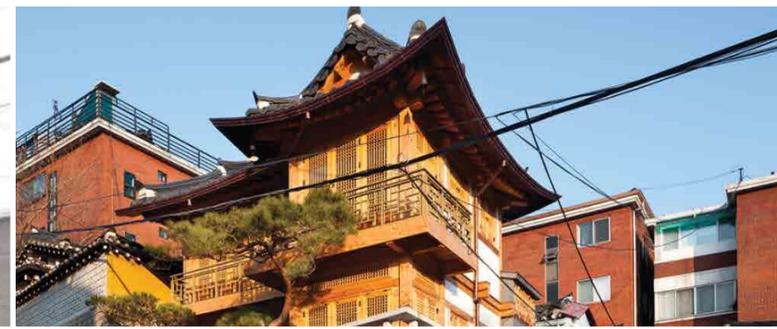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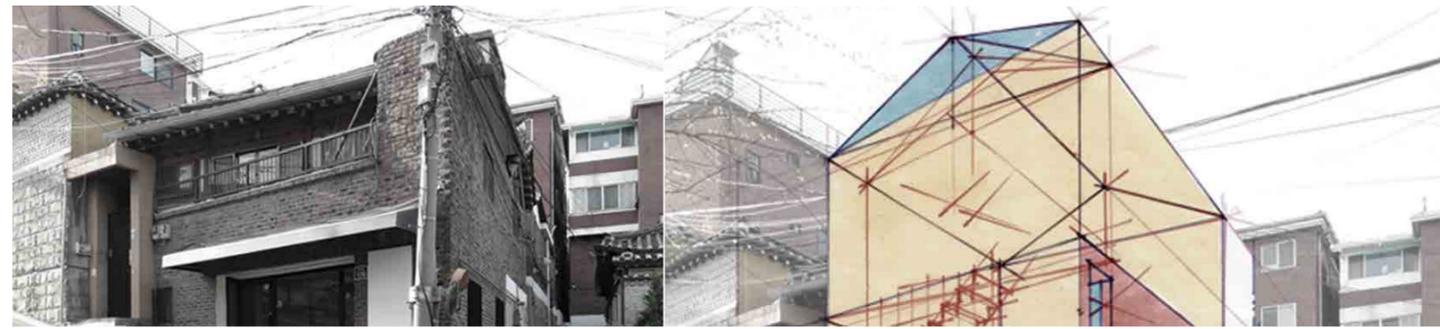
가회 한경헌은 전통 한옥의 구법과 재료를 과감하게 변화하여 지어졌다. 속살을 드러낸 목구조와 철구조,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 재료의 이질적인 물성을 융합하여 현대 한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위 : 석·사순복합지 종로구 가회동 11-61
지역 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지구, 제1종
대지 면적 : 77.30㎡
건축 면적 : 46.36㎡
연 면 적 : 125.44㎡ (지하1층51.69㎡/지상1층39.57㎡/2
층 34.18㎡)
건축 용 적 : 95.40%
용 용 :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목구조

건축 스케치





건축 계획

전면도로에 의해 비스듬히 잘려나간 면적 77.30m² 조건의 대지에 건축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 3칸, 측면 2칸, 처마 아래의 퇴공간을 계획하여 진북 이격거리를 후면에서 확보하였고, 전면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기단 석축을 적용해서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였다. 지하의 미술관은 경사진 대지의 특성상 1층의 1/2이 전면 도로와 측면 도로에 드러나 있고, 전면 3칸+측면 2칸(부분 3칸)+ 후면 퇴칸의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2개층의 전통한옥 부분은 지원공간을 퇴칸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목구조의 입방체적 공간에 간살잡이를 두지 않고 공간의 비워짐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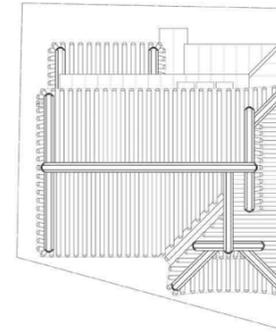
<가회 한경현>은 신공법의 2층 목구조 적용, 외벽의 단열성능 확보, 계단실을 철판재로 걸구하여 계단을 최대한 확보한 점, 발코니의 난간을 철판재로 디자인하여 강도와 안정성을 높인 점, 내부공간을 입식화하고 현대적 감성과 전통적인 감성을 통합하여 디자인의 적응성과 사용성을 높인 점 등은 한옥건축에서 진일보된 발전적 방향으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파생되는 사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도시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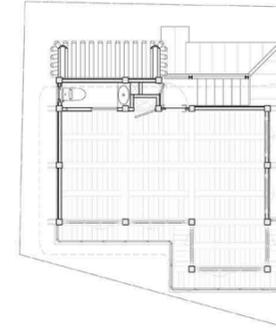
기존 한옥 밀집지역의 틈새에서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의 생성과 가회로와 북촌길의 확장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가로 입면이 훼손됨과 동시에 또 다른 변화를 촉발시켰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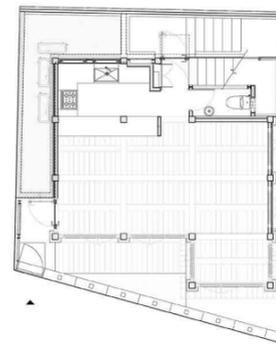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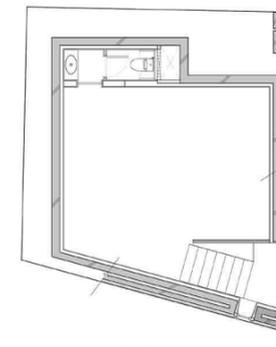
2층



1층



지하 1층



건축 과정

前

가회동 11-61번지의 건축 계획은 기존 구조를 개선하는 지하의 미술관과 지상은 미술관을 지원하는 휴게시설로 구상하였다.

初

창덕궁로의 급경사를 살려 지상에 일부 노출된 지하층, 지상 2층으로 활용. 경사지붕과 전면의 오름 계단으로 매우 조밀한 건축 볼륨을 생성하였다.

完

역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 3칸과 측면 2칸(부분 3칸), 후면 퇴칸의 공간구조를 가진 2개층의 지상 목구조지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축되었다.



준공부문 한옥상

자선당



설계자 김석순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
 시공자 김진식 주식회사 양백
 건축주 광주안씨광양군파종중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09
 지역지구 계획관리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대지면적 1,213m²
 건축면적 223.15m²
 연면적 223.15m²
 안채면적 168.70m² / 5량
 사랑채면적 54.45m² / 3량
 용도 단독주택
 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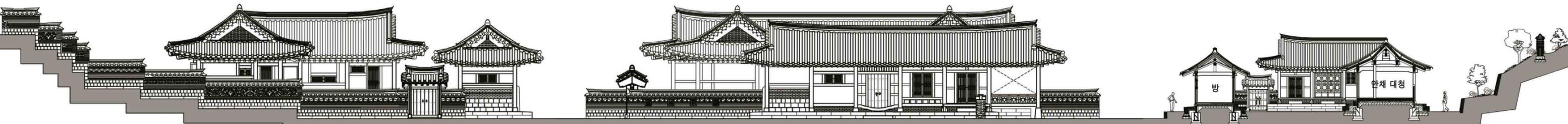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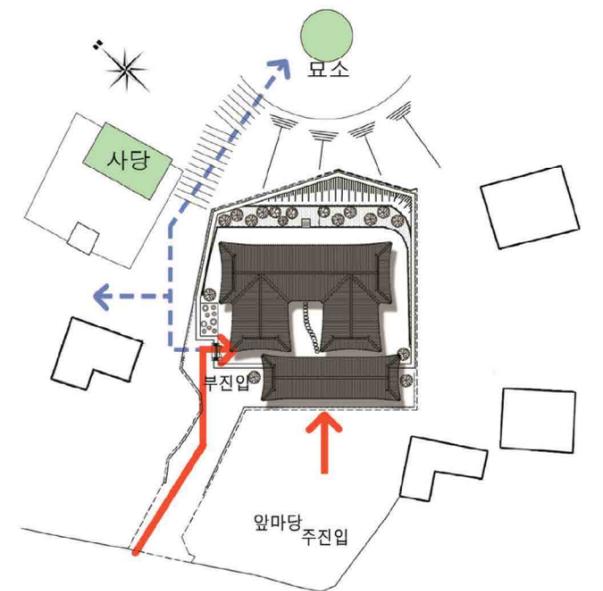
평면도



종택으로서의 한옥

자선당은 광주안씨 광양군파 종택이다.
 종택의 역할을 고려하여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해
 채분리를 하였다.
 후면의 묘, 좌측의 사당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튼 ㄱ자형의 배치를 하였다.

배치도



건물 내부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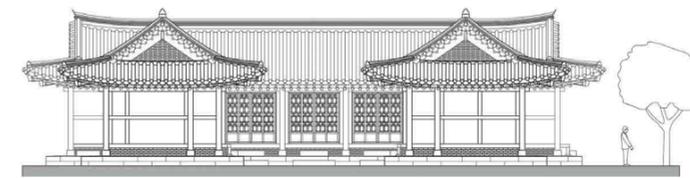


내부 천장 모습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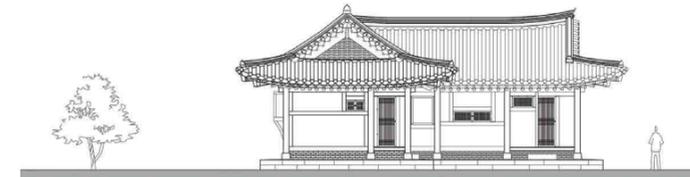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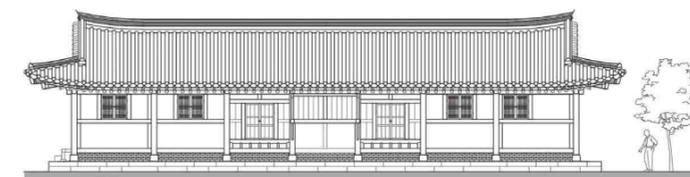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안채 주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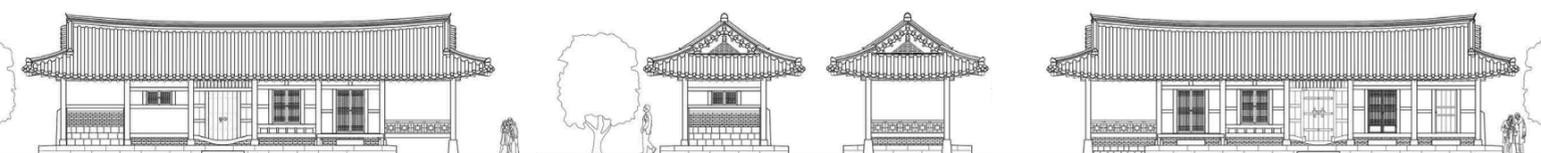


사랑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준공부문 한옥상

가회동 성당 사랑채

설계자 우대성·조성기·김형중
(주)건축사사무소오피스

시공자 이연성 로하스한옥(주)

건축주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0-3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150.30m²
건축면적 672.59m²
연면적 3,738.34m²
규모 지상3층, 지하3층
설계기간 2010.09~2011.10
시공기간 2011.12~20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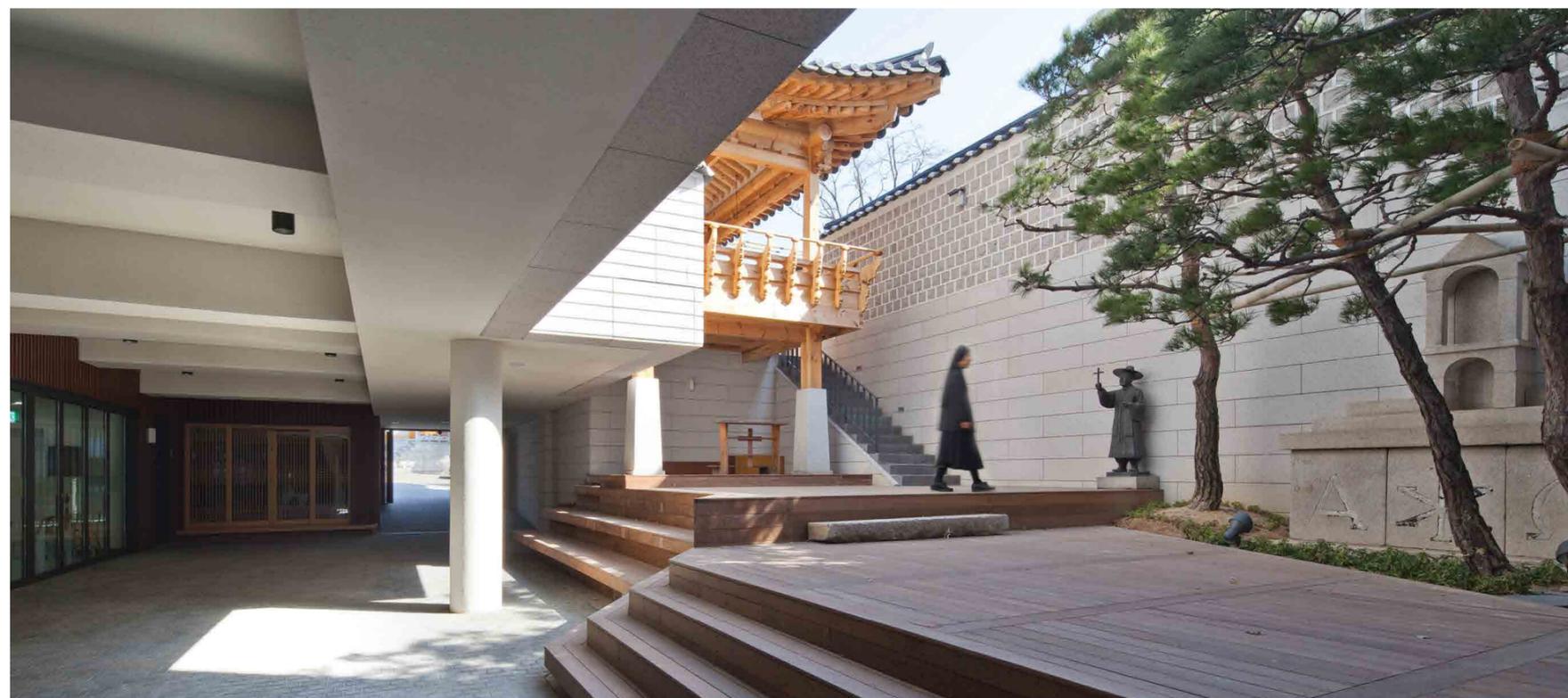
종교 건축으로서의 한옥

한옥, 열린 공간의 중심으로

가회동 성당은 계획 초부터 열린 성당으로 모두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북촌 풍경에 어울리는 거리의 표정을 만들고, 더불어 종교 건축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변화, 살아있는 공공의 건축으로

한옥은 기둥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과 창의 변화에 따라 풍경이 변화하고, 내외부의 경계가 사라지며,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그 장소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장소라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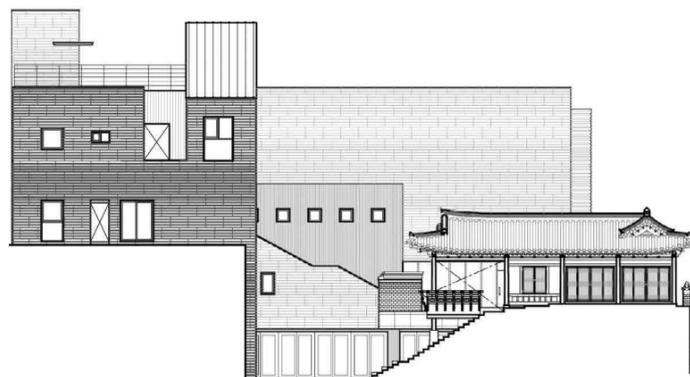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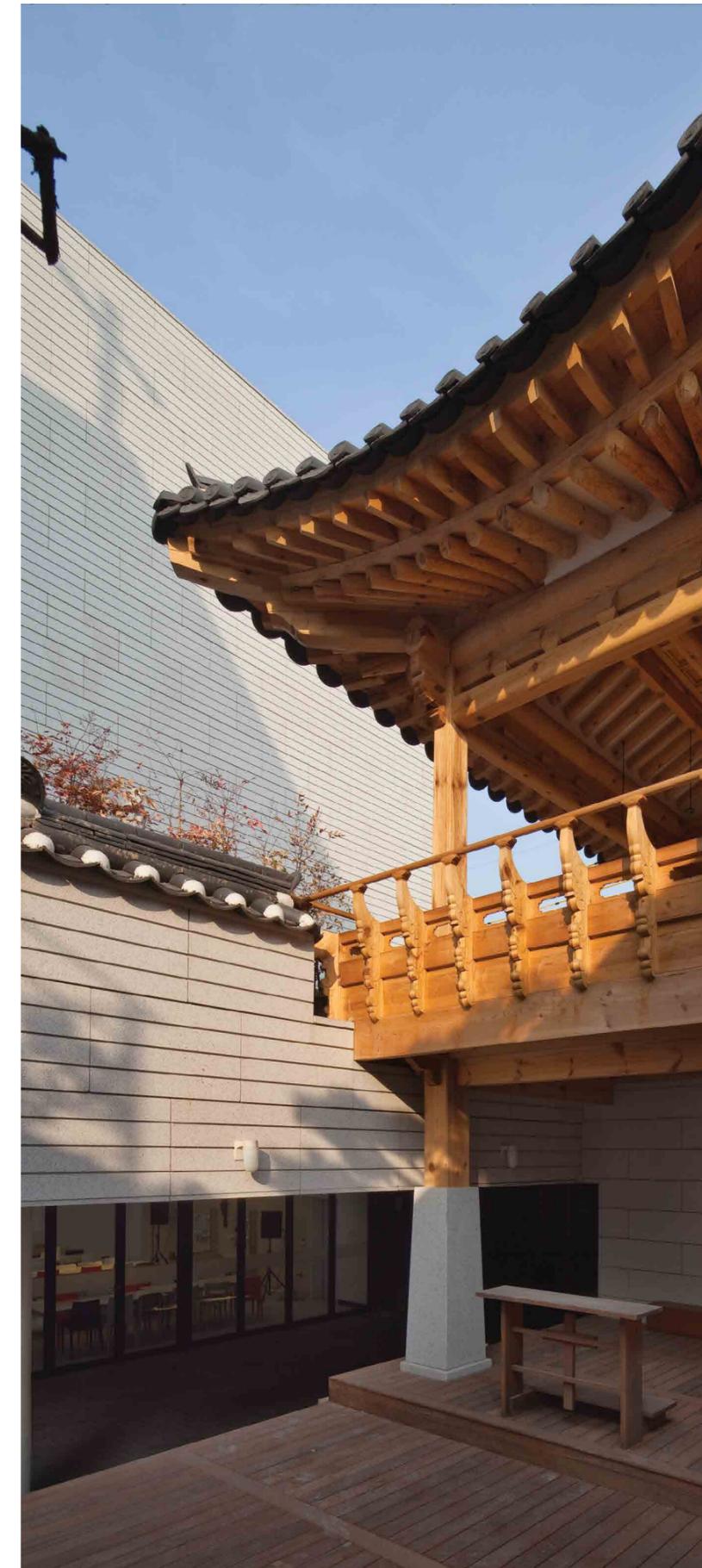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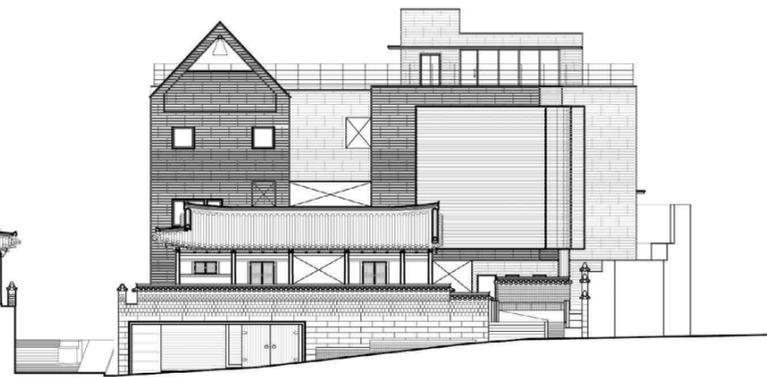
현대건축으로서 한옥 짓기

가회동 성당의 경우 복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건물의 규모를 작게 분절하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양옥과 한옥을 마주보게 하였다. 단독 건물이 아닌 복합 건물로서 한옥을 짓는 어려움은 우선 양옥 중심으로 짜인 법규적 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옥이 법적으로 누려온 혜택은 한옥의 보급과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이 접목되는 현대 건축물로서 한옥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옥에 적용 가능한 창호와 설비는 물론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술적 장치들도 건축가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공된 사랑채는 외형상으로는 어느 한옥과 다르지 않지만 오늘날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한옥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측면도



정면도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자연과의 균형
표수환

촬영장소 경남 창원시 성황사



사진부문
일반인

특별상

자연속의 한옥
최도원

촬영장소 경남 밀양시 위양지



금상

신선이 사는 월류정
노희완

촬영장소 충북 영동군 월류정





한옥의 빛
손목광

촬영장소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초가의 봄
김재현

촬영장소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지상 최고의 테라스
서정미

촬영장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덕수궁의 겨울
조현익

촬영장소
서울 중구 덕수궁





1



3

입선

1

덕유상제루
김현

전북 무주군 덕유산 상제루

2

도담상봉의 아침
장인영

충북 담양 도담상봉

3

봄소식
노정심

전남 구례군 화엄사

4

빛장을 열고
이상헌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2



4

5
사찰의 봄
유지훈

전남 구례군 화엄사



5

6
신나는 한옥체험
임주성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6

7
아메리카노
유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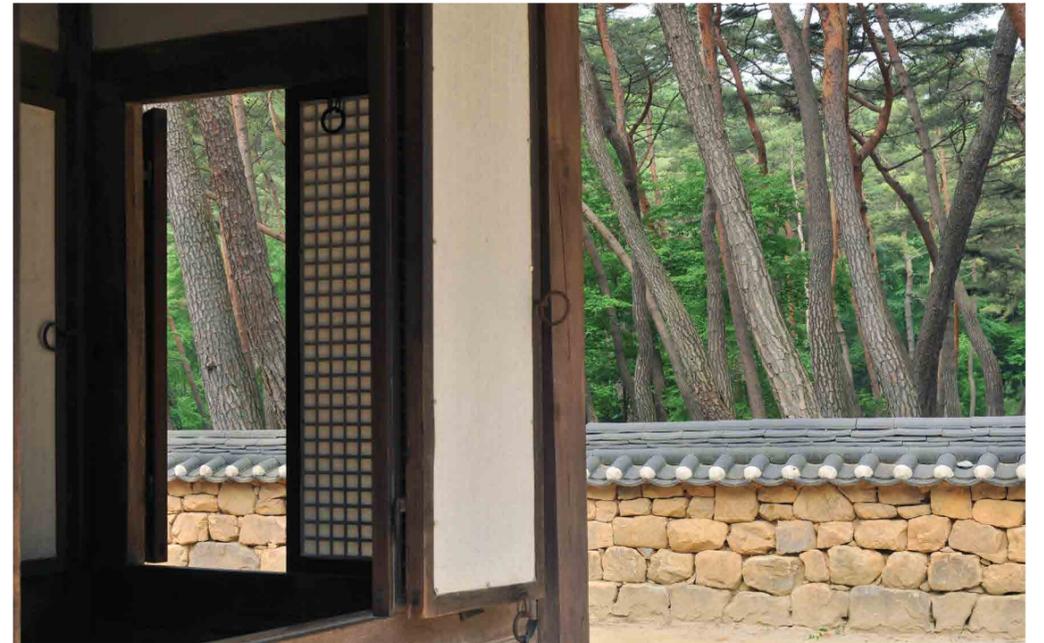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7

8
열린 풍경
김지수

강원 영월군 단종 유배지



8

9
전주동헌
박찬웅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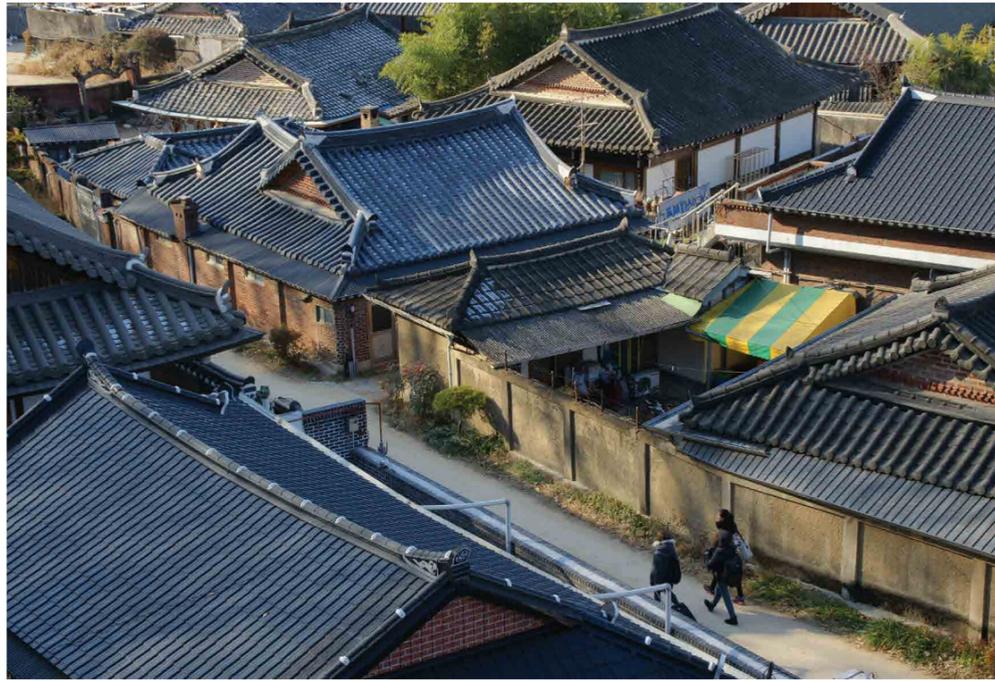


9

10

정담
임선미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10

11

한옥과 신록
서재희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11

12

한옥의 선
한선영

경남 고성군 옥천사



12

13

햇살 좋은 날
김태훈

경남 밀양시 밀양향교



13



14

14
호남제일문
박진수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15

15
짧은 휴식
곽재관

경기 고양시 북한산 중흥사지

사진부문

청소년

금상

그 시간 속 지금
한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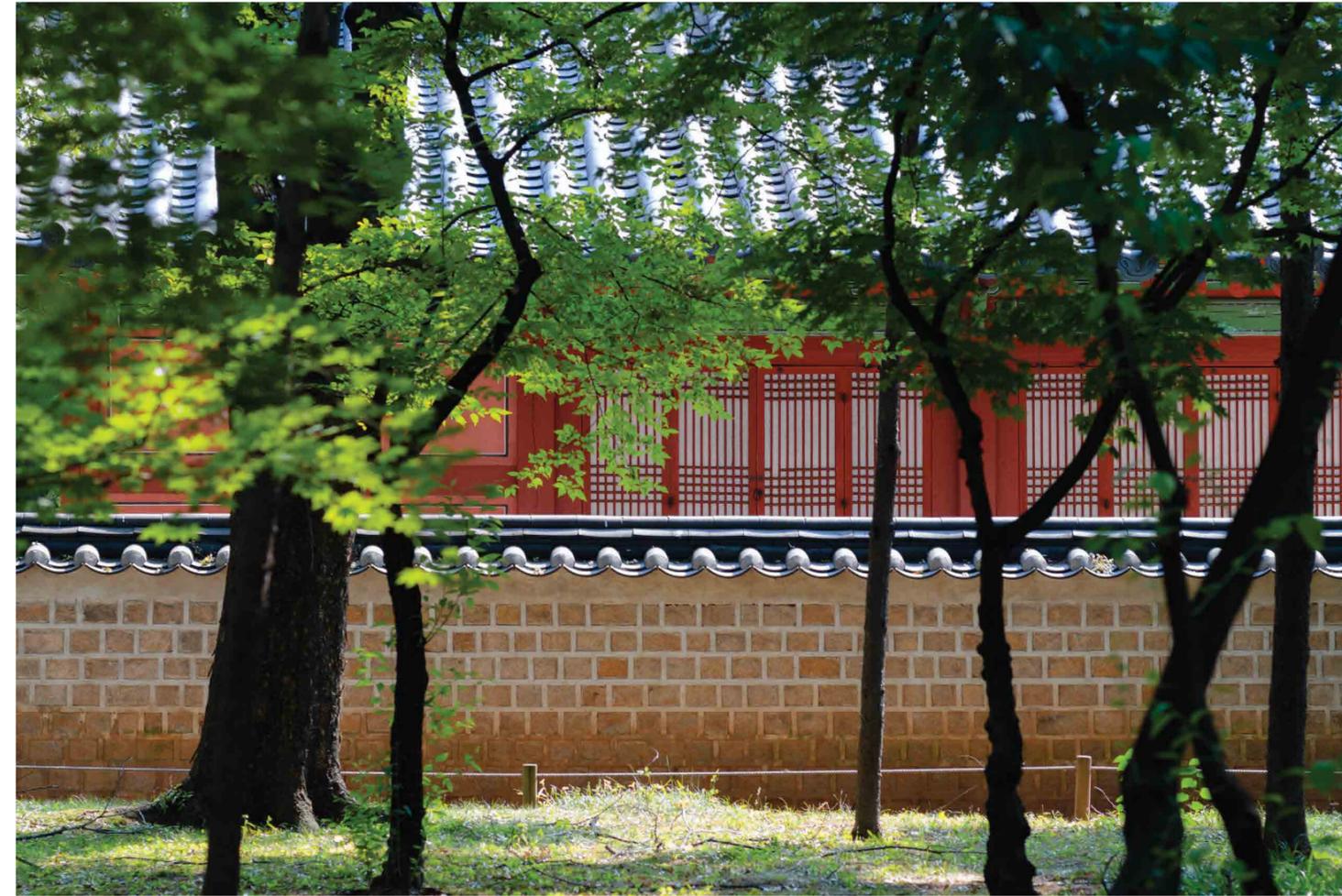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경복궁

특별상

인연
이윤지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비밀의 한옥
류준열

촬영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묘 재궁

그림자를 통한 한옥의 멋
박세은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

동상



강릉 선교장
권서윤

촬영장소
강원도 강릉시 선교장

새 삶이 움튼 곳
최유빈

촬영장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입선



1



3

1
그림자
김지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2
과거와 현재
김현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3
담 넘어 보이는
김현아

경북 영주시 선비촌

4
더욱 아름다운 한옥
하승연

서울 중구 남산한옥마을

5
세월
임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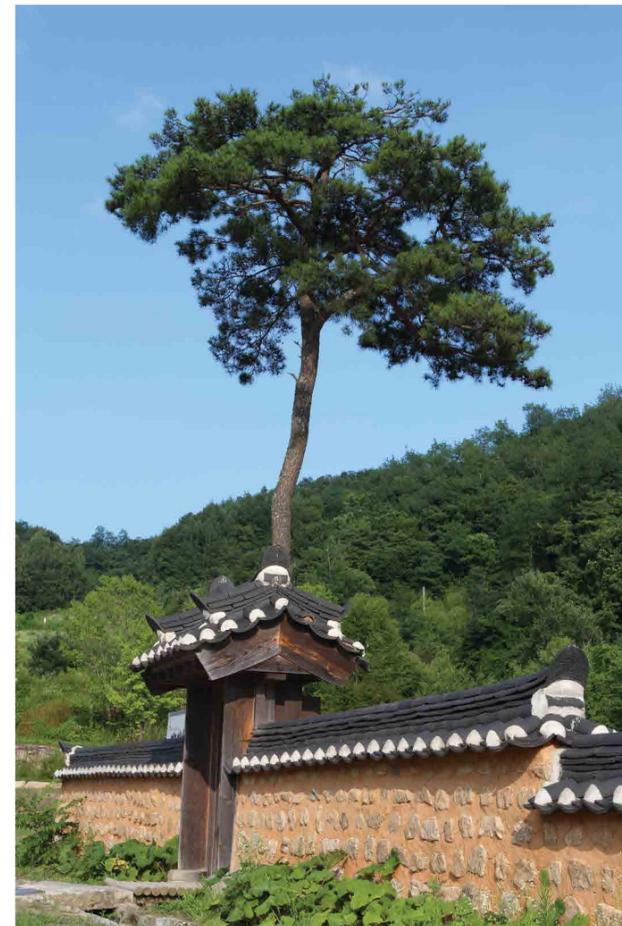
경북 영주시 선비촌



2



4



5



6

6
오늘을 살다
이연지

경북 영주시 한옥촌



8

7
지붕의 물결
이가영

전남 순천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8
한옥집 등불
이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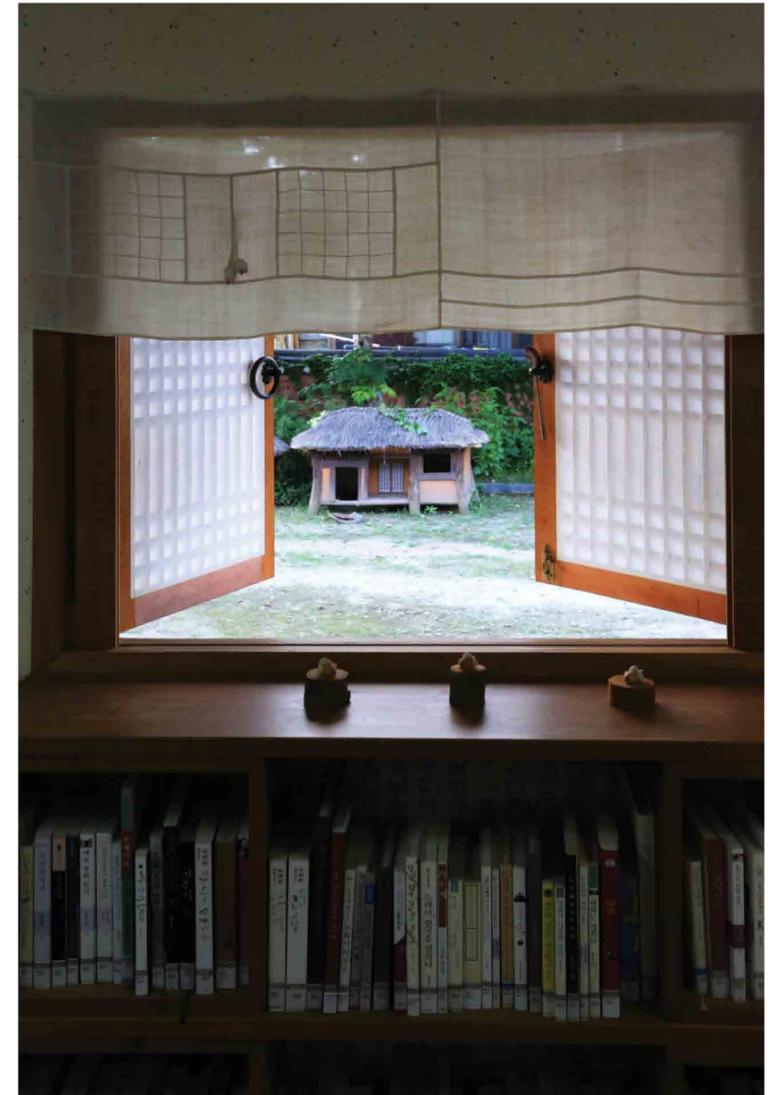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남산한옥마을

9
또 다른 곳
금강산

전남 순천시 한옥골방



7



9

계획부문

계획부문 대상

모두의 사랑채, 국회의사당

김종범
강치호
조보경
문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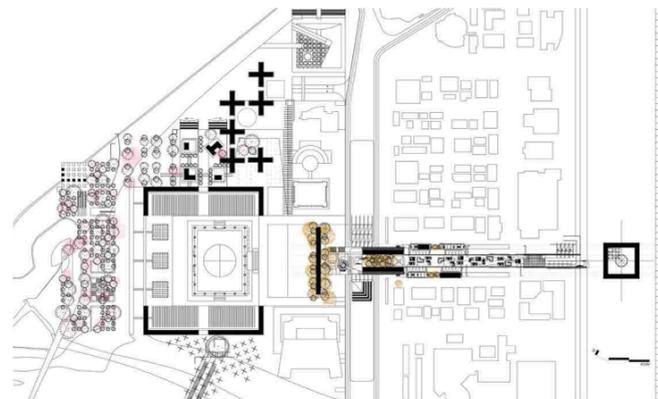


가장 보통의 보편적인 열린 공간되기

한국의 국회의사당 밖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빈다. 봄에 벚꽃이 피고, 여름엔 고수부지에 계절을 만끽하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가을엔 불꽃축제가 벌어지니 이만한 유희공간이 따로 없다. 또한 사회적 화두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쟁의의 공간이기도 더욱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사당과 담 안 영역은 언제나 음침하다. 국회의 닫힌 형상은 건축형태에 묻어있다. 녹슨 청동을 받치는 거대한 열주의 건축은 1970년대의 한국을 묘사하는 듯하다. 이 시대를 흐르던 권위주의적 모습이 오늘날 국회를 기억하는 조각 중 하나로 남아있다.

모두의 사랑채는 한국 전통 건축과 개발 국가시기에 한국에 보내는 오마주다. 그래서 이 작업은 국회의사당에 잔향처럼 남은 전통건축의 형태에 대한 비판과 각색보다, 이를 우리 역사의 한 커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의사당 일원의 권위적 모습은 전통이라는 역사적 장치를 통해 새로운 정통성을 만난다. 공공은 언제나 전통을 공유한다는 유사성을 내포한다. 이 접점은 전통 건축이 역사 건축이 되는 지점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통성이 열린 시민 사회로 향하는 시발점이 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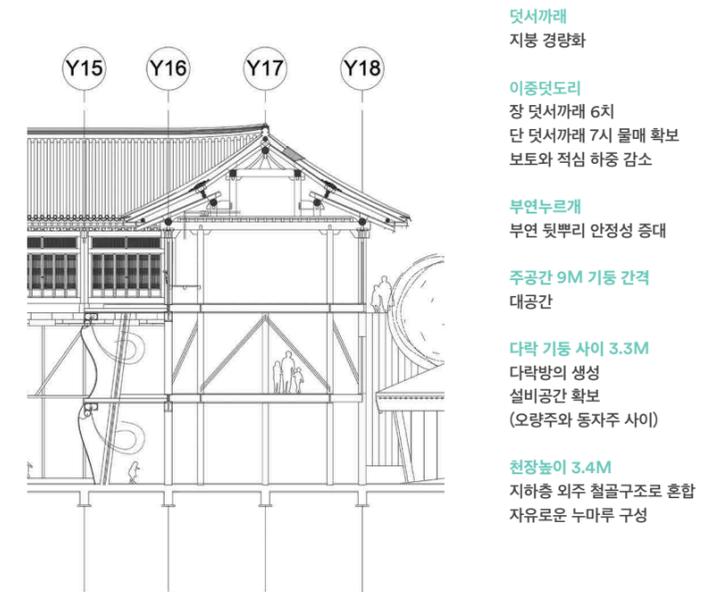
여의도 일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장소성은 한국현대사 속 공론장에 있었다. 한옥에 피어오는 잠재된 공동체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땅 위에서 시민공론장의 형태로 다시 마주한다. 이 모습은 한옥의 지붕 아래 말하고-듣고-대화하고-생각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들에 관련된 것이며, 이것들이 공론화를 거쳐 국회의사당에서 현실이 된다. 이 시간 속에서 모두의 사랑채는 거대한 국가 속 아고라를 닮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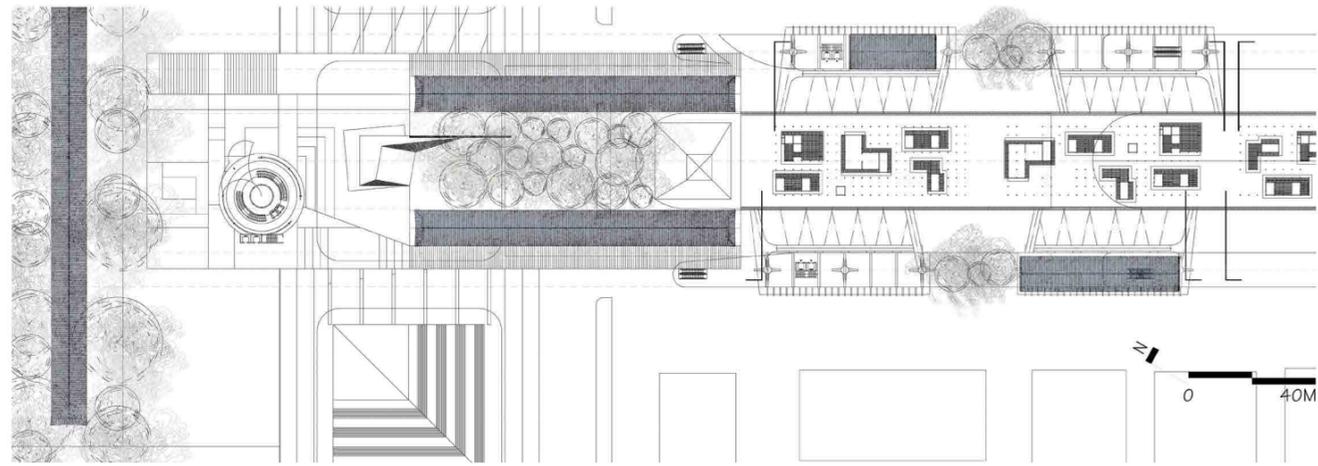
모두의 사랑채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공의 빈집이다. 국회의사당은 역사와 국가의 중심이었으나, 공공에게는 변두리였다. 그러나 한옥이란 기억 속 공통의 색채를 입은 이 장소는 다시금 잠재된 공공의 기억들을 불러낸다. 각자의 삶만 존재하는 도시 속에 놓인 사랑채는 모든 이의 일상 속 만남의 장을 자처한다. 한옥은 전통을 환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속에서 사회는 공동체로 회유한다.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 시대와 장소의 물리적-정신적 단절을 뛰어 넘는 집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난 한 세기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국회의사당이 삶의 이야기가 응집돼 터져 나오는 현장이 되어, 어느 날 어느 때에 도래할 가장 보편적인 보통의 장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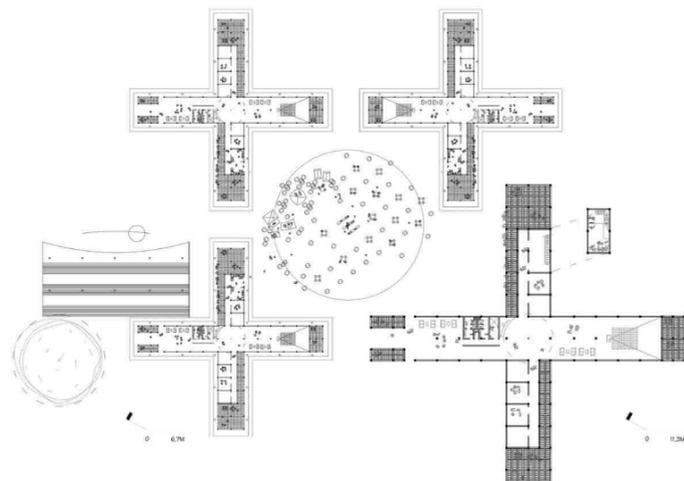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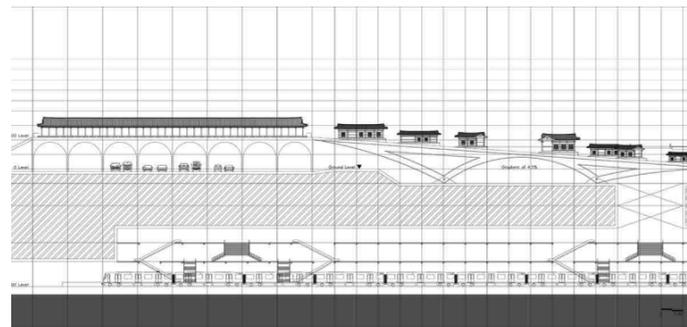
한옥 풍경길

오늘날의 도시에서 한옥이 과거 산수간에 집을 짓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옥의 체를 연결해주는 크고 작은 마당과 같은 외부 공간 또한 도시의 한옥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단 한옥만이 아닌 현재의 대다수 건축이 '땅'이라는 본질적 이야기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사랑채는 도시에서 공동체가 품고 있는 한옥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한옥이 아닌 땅을 먼저 생각했다. 제한된 땅에 일정 규모이상의 대공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도 정의내리지 않았고-한반도 내에서 살고 있는 다수의 이들로부터 어떤 일반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 한옥이란 건축적 허상의 이형을 만드는 작업에 공공성이란 다중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했다. 그래서 인공의 대지를 도시로부터 분리된 10.8M위의 공간에 올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관통하는 여의도의 긴 세로축을 따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는 가장 전통에 가까운 형태들의 한옥들로 과거의 형상을 재현했다.

도시의 다양한 조건들이 상충하는 맥락들과의 연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형태를 통해, 도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치인 사람사이의 공존이란 가치를 논하는 공론장을 한옥으로 담아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옥이라는 형상의 가치는 이러한 이형의 땅과 원형의 형태 사이에서 돋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 정의되거나, 다수의 문화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여지를 갖고 있는 한옥은 모두의 사랑채라는 제도권 속에 배양된 최초의 한옥 공공시설로부터 분화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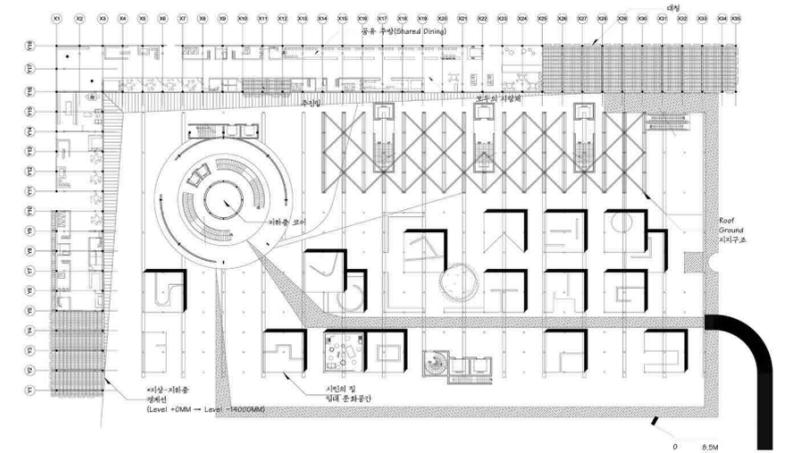


국회의사당 복도각

국회의사당의 담이라는 경계가 생성한 내부와 외부의 단절은 국회의사당이 갖고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무게감과 함께 의사당일원을 여의도 속에 또 다른 작은 섬을 만들어냈다. 사랑채를 복도각이란 전통적 형식을 빌린 것은 담이라는 닫힌 요소에 복도가 갖는 통로라는 가치와 공용공간이라는 기능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복도각이 행랑-월랑이란 이름으로도 불리던 한국 궁궐건축의 경계생성 방식의 이점-지붕만으로 혹은 지붕과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로 통로를 구축하는 방식 이외에 조선왕조의 의례 공간이었으며,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했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복도각의 공공시설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랑채는 열리고 닫히는 개구부의 변주를 통해 통로이면서 동시에 공간이며,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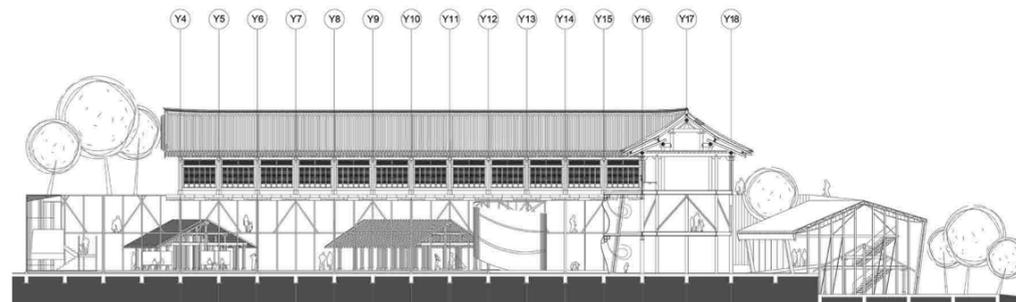
복도각은 내외부의 연결이라는 수평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의원회관-의사당-국회도서관을 연결하는 약 460M의 지하통로를 수직적으로 복도각과 결합시킴으로써 국회의사당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시민의 공간으로의 기능을 서로 엮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을 지상으로 끌어내야했고, 이 과정에서 한강고수부지-여의서로(윤중로)-복도각-의사당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한국건축사 속 복도각은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은 아니었고, 그곳이 대공간으로 지어져야할 당위성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사랑채에서의 복도각은 누구에게나 열리는 공간이므로 대공간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붕의 경량화와 새로운 목구조의 도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건식구조와 북미의 목재를 지어낸 건물은 '한옥의 원풍경(양식적 접근이 아닌 공간과 경관으로의 모사)에 다가가겠다!' 라는 모두의 사랑채 계획의 방향성과 상충하는 가치였다. 이것은 한옥의 형태에 대한 우리 문화권내의 양립하는 두 개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했다. 전통이나-창조냐, 양식이나 공간이나. 모두의 사랑채는 두 간극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했다.



이 속제를 푸는 열쇠는 19세기와 20세기의 한반도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던 덧걸이 또는 덧도리 양식을 지붕의 구조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재의 어느 지점을 딛고 있는 이 구조는 다락의 형성이 용이하고, 덧집 또는 헛집을 덧서까래 혹은 허가연處家椽에 의해 구현해냄으로써 지붕의 보토와 적심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지붕 밑 공간은 현대적 설비에 대응하기에 용이하며, 구조의 유지보수에 편리하다. 이를 통해 여간 기둥사이의 9미터에 이르러 대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길게 늘어져 커다란 트인 □자 집이 되거나, +자형의 집이 된다. 가장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닮았다. 이 형태와 배치는 국회의사당이란 국가의 건축에 어울리는 한옥의 격일 수 있는나는 의문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사적 탈식민주의를 견고한 한옥에 지역성-대지의 특성-기능성 등의 조건들을 수용하여 '친절한 건축'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통의 곡해와 형식사적 왜곡이 다음 세대에겐 전해질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했다. 맥락으로부터의 단절을 고향으로 맥락을 보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다른 의미의 상징적 건축(건축의 물리적 형태의 기념비성이 아니라, 오직 맥락의 관계성이 상징성을 갖는)이다. 이로써 스스로 '불친절한 건축'이 된 모두의 사랑채는 공간 본연의 가치-사람을 담겠다는 의지만 남는다. 이 의지는 겹겹이 쌓인 중정들과 틈 사이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마주하게끔 한다. 이 마주함이 만들어낼 가치는 역사 또는 건축계의 비평들을 통해 논해질 무수한 '무엇이 전통이고 한국적인 것이며 미래냐는 논쟁보다 더욱 나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모두의 기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답해줄 것이다.



계획부문 특별상

반한옥; 잠겨진 기와를 열다

최이섭
문수진
최현성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한옥은 전통이다. 옛 조상들이 살고 숨 쉬며 지냈던 공간이며 당시의 역사를 빠짐없이 담아낸 그들의 유산이다. 갈수록 뻣뻣해져만 가는 도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한옥은 그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함이 분명하지만 도시 속에 한옥이 자리잡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한옥이 가지는 정취와 멋을 내기 위하여 내주어야 할 마당과 정원 등의 공간들은 콘크리트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기에 아직은 버거운 현실이다.

우리의 전통가옥양식인 한옥을 현대적 건물이 만연한 도심에 어우르게 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체험' 공간이다. 공공시설로서의 한옥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한 점은 낯설지 않은 한옥, 이용자와의 소통, 그리고 현대도시로의 확장가능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계적인 현대건축에 익숙해진 후손들에게 대청과 누마루, 그리고 축부의 위에 그 높이만큼 다시 올라가는 기와지붕은 멋을 위해 포기해야 할 불편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를 유려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물매'이다. 경사도를 뜻하는 물매는 한옥의 외관과 채광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지붕 아래에 사람이 쓸 수 없는 서까래와 대들보의 공간을 만들어지게 한다. 즉 전통적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지붕 아래 공간을 현대에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공간의 활용이 현대에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고 기존의 한옥을 반으로 자르고 재배열함으로써 이 공간을 주변 컨텍스트와 면하도록 해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이 직접 대들보 위 공간에 올라서서 손닿을 듯 가까운 공간에서 서까래와 도리 등이 지나가는 특별한 체험공간을 만든다. 또한 한옥의 횡단면이 현대건축에서 말하는 facade가 되기에 주변의 빌딩숲과 어울리는 한옥의 역할을 하고,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전통 한옥을 만나게 된다. 외관은 창이나 루버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현대적 건물들의 흐름에 우리의 한옥을 조화롭게 한다.



평면도



단면도



단면 모습



계획부분 금상

한옥으로 통(通)하다

박혜정
김지용
서윤교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5-11 평창 올림픽 시장 및 부근 일반상업지역
 지역지구 5,960m²
 대지면적 약 2969m²
 건축면적 약 4023m²
 연면적 철근 콘크리트조 + 목조
 구조 가구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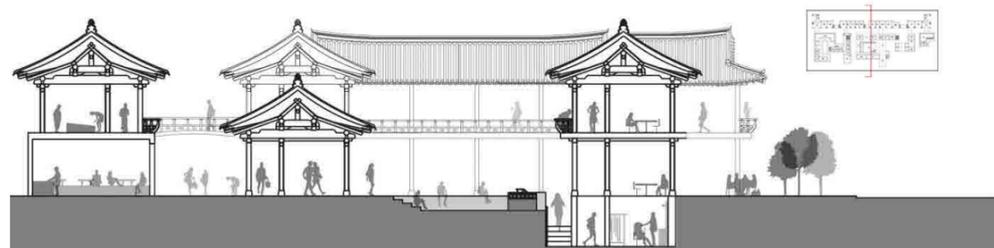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 올림픽 유치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20조에 달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의 지역발전대책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경제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평창군 경제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상권이 살아나야 하는데 현재 평창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그 규모가 작고 협소하며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해 추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방문 시 시장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통시장을 한옥으로 재건축하여 랜드마크로 만들어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 평창군 상권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자 하는 데, 그 요소로서 한옥을 제안하는 바이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평창 올림픽 시장은 현대식 상설시장과 전통5일장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현재 60여개의 상설시장 점포와 5일장 노점이 운영되고 있다. 평창 시외버스터미널이 서쪽으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남쪽으로 평창강이 위치하고 있어 경관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현재 시장은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위한 장소가 없어 시장을 가로막고 진행된다. 한편, 시장 내 전통 5일장을 위한 공간 또한 협소하여, 시장 바깥쪽의 차도를 점거하고 진행되는 상황이다.

단면도



1층

기존 상설시장에 있는 상점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계획하였고 상점 뒤쪽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을 두어 상인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상설시장에 들어서는 곳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마찬가지로 남쪽에 위치한 한옥시장에도 대청마루를 곳곳에 두어 쉼터를 마련해주었다. 남쪽으로는 새로운 한옥상점이 들어서며 퇴칸을 이용한 회랑을 상점 앞에 둬으로써 기후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왼쪽에 있는 건물에는 평창 홍보관, 안내센터, 관리사무소, 특산물판매 상점을 두어 시장 방문객에게 평창올림픽 및 평창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평창 홍보 역할을 겸하도록 한다. 남쪽 중앙에 있는 건물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회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이는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공연장은 기존 상설시장 거리에서 행해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 차이를 이용해 공연장의 구역을 정의하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파출소는 규모를 확장시켜 팔작지붕의 1층건물로 만들어 줌으로써 문루와 함께 시장의 입구성을 더욱 강조해 준다. 기존 도로에 산재되어있던 주차장을 정리해 주어 차량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며 도로에 접한 곳에는 나무를 심어주어 차량과의 시각적 차단을 해주며 자연스럽게 나무 길을 따라 시장으로 들어설 수 있게 의도해주었다.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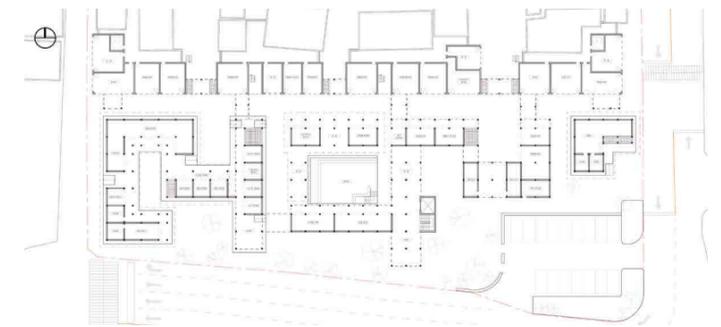
1층과 마찬가지로 퇴칸을 이용한 회랑을 둔 한옥 상점을 계획하였고, 상설시장과 한옥시장을 브릿지를 통해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한옥시장거리로 들어서는 동서로 입구를 두어 시장의 입구성을 강조하였고, 카페의 테라스 역할도 겸하도록 하였다. 남쪽 입구에 위치한 문루나 누각은 평창강을 향해 열어두었고 난간 안쪽으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 시장 입구에 있는 홍보관과 파출소 건물은 시장의 위계와 달리하는 만큼 팔작지붕으로 계획하였고, 나머지 건물은 맞배지붕으로 계획하였다.

지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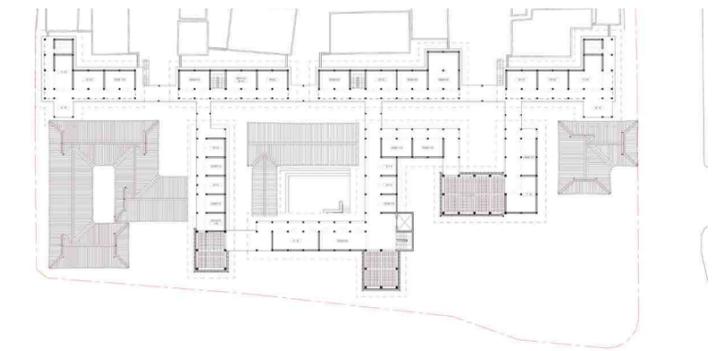
현대식 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조 건물로 계획하였다. 공연장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지하층은 공연을 위한 공간 즉, 공연준비실, 분장실, 창고가 위치한다. 또한 공공화장실을 지하에 두어 지상에 상점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려 하였고 코어와 함께 배치하여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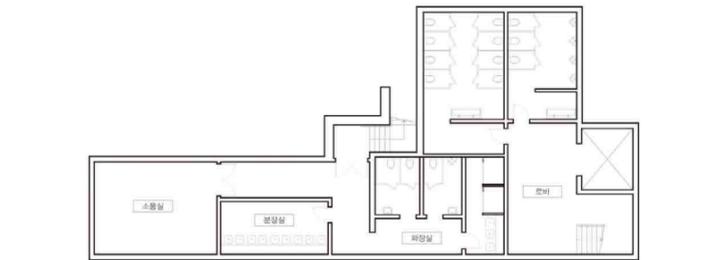
1층



2층



지하 1층



계획부문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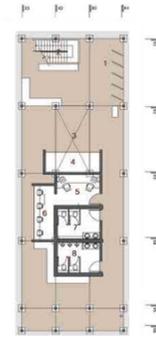
벗은채

김동연
황수현
정영호
유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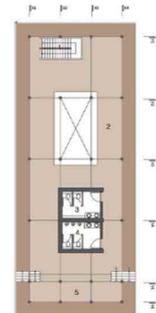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공공청사
건축면적 234m²
연면적 468m²
층수 지상 2층
구조 한식 목구조
용도 시외 버스터미널



1층 내부 및 평면도



2층 내부 및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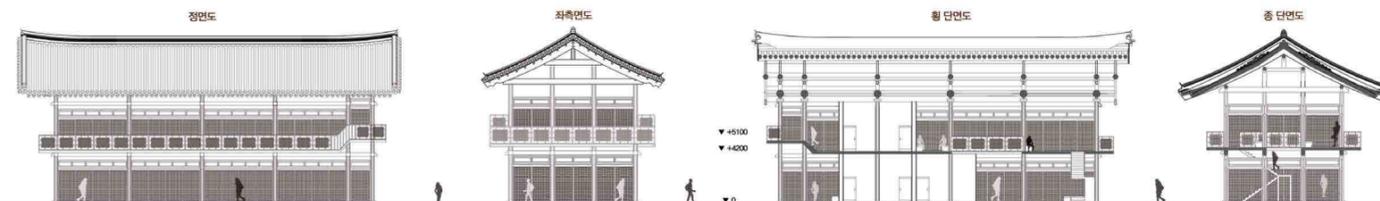
친구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친구와 멀리 있어도 한결같은 친구가 있다. 한옥은 멀리 있어도 한결같은 친구였다. 한옥을 전통 건축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만 매달리다 보면 한옥은 화석화된 유구로 머물기 쉽다. 이제는 한옥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옥을 살려내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통해 한옥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가장 큰 특성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즉,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자주 이용하기 보다는 특정의 일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목적성 건물이다. 그렇기에 공공건축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화려한 치장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두가 누리는 공공건축물은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열고 보여주면서 도시 속에서 별거벗은 건축이 되어야 한다.

시외버스정류소는 기쁨, 반가움, 그리움, 기대감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삭막한 도시 안에서 많은 감정과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며 흐르는 장소이다. 또한 도시속의 길과 마주하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만을 충족하며 서있다. 정류소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를 찾아오고 떠나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장소이다. 도시간의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한 차량들의 흐름이 함께 하는 곳으로, 빠른 흐름과 멈추어진 기다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도시의 얼굴은 한결같은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옥은 다양한 표정과 미소를 가지고 있다. 한옥의 요소인 분합문은 열고 닫음으로써 공간을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각각각색의 공간을 구사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멈춰 있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한옥을 통해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또한 빠른 발전에 맞춰가지 못하고 정체된 한옥도 굳더더기를 벗은 채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소중한 일상과 세월의 흔적을 함께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단면도



계획부문 은상

유지(維持)하며
변경(變更)하다.

한지현
이선영
권순만
최우재

INTRO

우리 주변의 쉽게 접하는 도시한옥들은 경제성장속 낙후되고 재개발되어 대부분이 사라졌고 그 틈 사이로 한옥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신한옥 등 현대사회에 맞춘 한옥의 재해석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한옥이나 새롭게 시도되는 신 한옥만큼 근대 한옥인 도시한옥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하며 기존의 도시맥락과는 상관없이 용도를 변경하고 상업화 하며 주거 용도의 도시한옥의 맥락을 끊고 상업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에 도시한옥의 특성을 이해하며 도시맥락에 맞는 적절한 용도로 리모델링하며 기존의 도시한옥의 맥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존의 도시한옥을 살펴보면 서로의 건축선까지 확장하여 긴 골목을 형성하고 각자의 건축선까지 확장한 한옥의 사이에는 커뮤니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그 골목의 경관을 보고 관광객들이 몰리며 상업화 되는 것이 한옥 밀집지역의 도시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고 적절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시한옥에 도입하며 관광객과 주민사이의 프라이버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 도시가 이분화 되지 않도록 계획되도록 하였다.

PROGRAM

서쪽으로 인사동과 경복궁 동쪽으로 창덕궁과 종묘가 자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익선동은 인사동에서 끊어진 관광라인을 종묘로 이어줄 수 있는 요점에 서 있으며 구 오진암 요정의 터가 있던 곳으로 주변으로 한복업이 성업하고 있고 낙원상가와 둔화문로의 국악 예술제로 인해 전통악기 또한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상업시설과 체험시설을 계획하여 북촌과 인사동처럼 특색없이 상업화만 진행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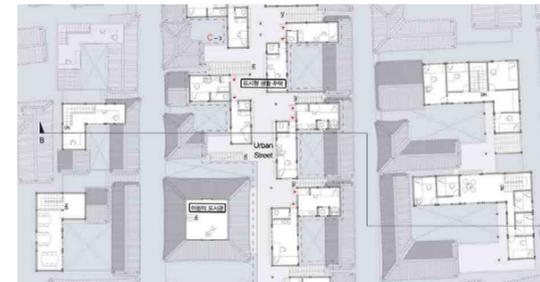


평면도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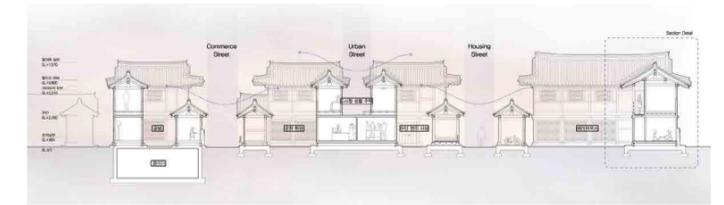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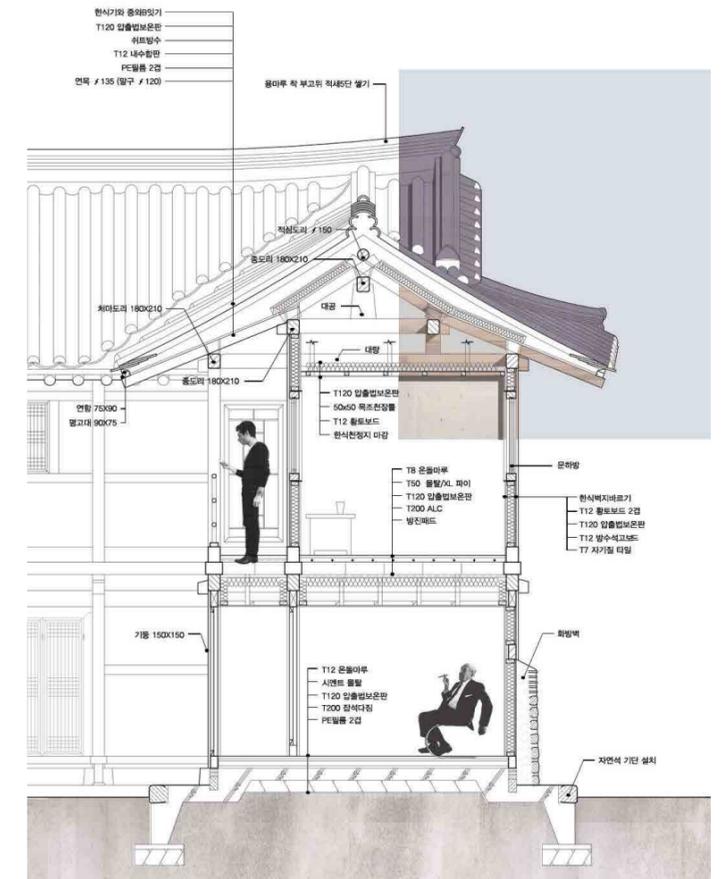
SITE

조선시대 지금의 익선동 자리에는 축후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송월동으로 이전하며 이곳이 큰 내대지로 남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 디벨로퍼 정세권이 이곳을 매입해 1920년 보급형 서민한옥, 도시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 필지를 나누고 자리잡아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한옥은 2004년 재개발의 위협을 받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지정 취소되었다.

단면도



상세도



계획부분 동상

너나들이

백지혜
양가영
황세은
김예은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 금성관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9240m²
연면적 7620.7m²
건축면적 3375.6m²
규모 총 4개층 (지하 2층, 지상 2층)
건폐율 36.5%

너나들이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너나들이하는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지낼 수 있다.
물론 그런 관계라 하여 예의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식적인 예의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툼한 친구 사이라고나 할까.

마당은 자신은 형태를 가지고있지 않고, 외부의 요소로 경정된다는 점에서 코라를 닮았습니다. 코라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당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한옥도 없습니다. 마당은 한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특별한 건축공간입니다.

ISSUE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전남도에서는 행복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관광자원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로 선정한다.

문화와 결합한 관광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에 역사가 더해지면 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문화는 발전되기에 문화와 결합한 관광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어가던 도시를 되살린다.

나주시 잠사시설 공모사업 선정 관광 활성화 기대

나주시는 옛 나주잠사 기숙사 건물을 게스트 하우스로 탈바꿈하여 도심권의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코스경비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공간 컨셉

BASEMENT

금성관의 마당인 대지를 비우고 지하로 내리면서 양옥과 한옥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분화시킨다.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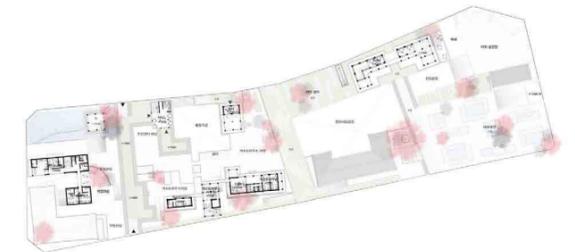
각 시설마다 마당들이 배치되어 프로그램들의 공간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엮고, 주변시설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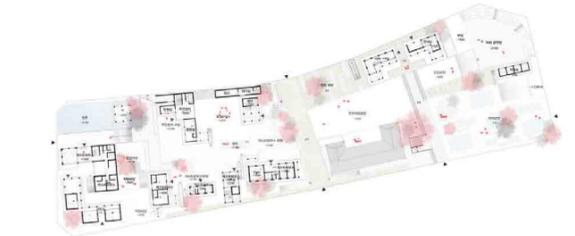
PRIVACY한 공간과 PUBLIC한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금성관을 시작으로 번두리로 갈수록 주민들의 영역으로 변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융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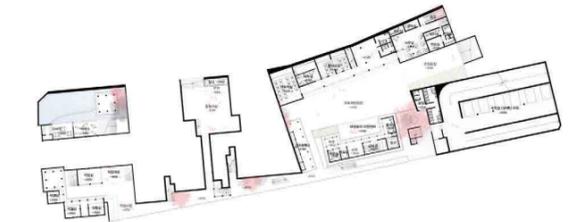
Level 4200



Level 0



Level -4200



한옥+양옥

한옥은 일반적으로 2층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넓은 공간을 갖기가 힘들다. 단점을 극복할 방안으로 현대식 철골구조의 건물과 한옥을 결합한 형식을 통해 지하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수직가능성과 수평가능성을 넓혔다.

한옥+아트리움

아트리움의 개방적인 특성과 한옥의 폐쇄적인 특성을 조합하여 같은 건물내의 다른 프로그램을 구분하는데 사용한다.

한옥+한옥+아트리움

한옥과 한옥 사이의 경계를 아트리움 형식의 오픈 BRIDGE를 통해 공간과 공간 연결사이의 한옥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공간감을 느끼도록 한다.





계획부문 동상

세운학교 도심형 대안학교

유한식

대지와 도시(Urban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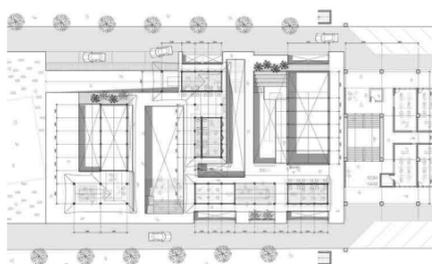
서울이라는 도시의 구조체계상 기능적, 공간적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세운상가 일대. 매우 밀집되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는 이 곳, 하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겐 공공의 영역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지와 시간(Urba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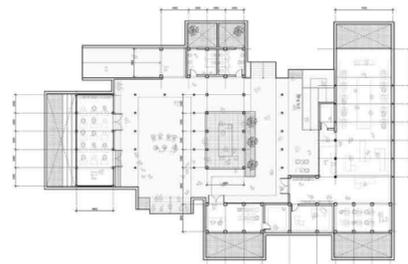
1945	소개공지
1950-1968	소개공지 위 판잣집, 사창가(종삼)
1966	서울시장으로 김현욱 부임 이후 무허가건물 철거
1967	현대상가가 최초로 준공
2003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대규모 정비
2006	서울시장 오세훈 취임, 세운상가와 그 일대를 공원화하기로 공약
2008	현대상가가 최초로 철거되어 세운 초록띠공원으로 재탄생함
2014	남은 상가의 철거는 무산되어 세운상가를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을 고려함

평면도

1층



지하 1층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43-1, 종로구 장사동 2-1
-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대지면적 3,406.8m²
- 건축면적 287.52m²
- 연면적 514.47m²
- 구조 지하1층, 지상1층
- 용도 교육연구시설
- 건폐율 8.43%
- 용적률 15.10%
- 조경 12%
- 주차대수 계획 4대

도심형 시민대학

세운학교는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 뿐만이 아니라 종묘와 한옥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그 사이에서 한국성을 고민하여 새로이 생겨날 마당에 인문학과 제조업학을 배우는 도심형 대안학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먼저, 한국의 삶과 흔적, 역사를 통해 현재의 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인문교실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대와 세대간의 소통을 이룬다. 또한, 세운상가 일대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주변의 기계, 전자, 인쇄, 건축등제조업의 현장에 근접한 이점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직업훈련이 가능한 제조교실을 운영한다.

세운상가에서 세운학교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운상가. 한때 세운상가를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마되고 만다.

6년 전, 시장의 공약으로 북쪽의 현대상가가 철거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철거계획은 백지화가 되었고, 비워진 땅은 세운초록띠공원이 되었다. 계획의 시작은 다시금 비워진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전시행정의 상징이 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공원에 새로운 한옥을 지어 공공의 장을 만든다.

XL에서 S로

메가스트럭처(XL)인 세운상가의 주변에는 작은 건물(S)들이 뿔뿔히 모여있다. 주변일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의 건물은 소통을 위한 작은 스케일을 요구한다.

기존의 한옥에서 새로운 한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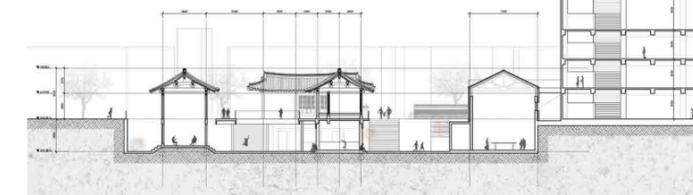
열고 닫는 구조가 가능한 한옥의 □자형 평면, 열린 평면의 배치, 두 개의 분화된 마당, 위요된 중정

풍경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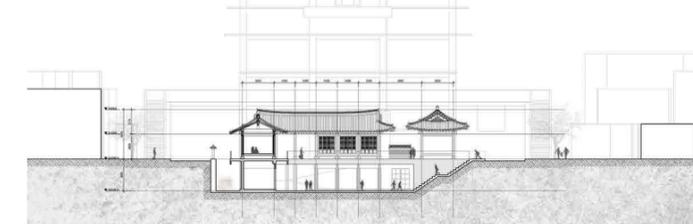
옛 공원의 조직 소통이 되지 않는 공원, 비움의 마당 누구나 누리는 소통을 위한 연결, 한옥의 새로운 풍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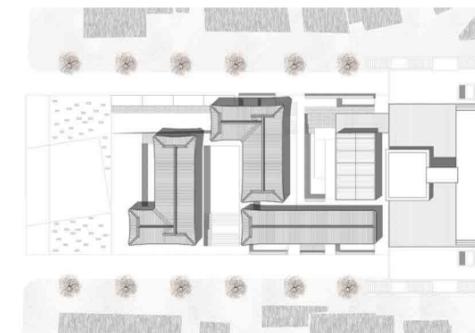
중단면도



횡단면도



배치도



계획부분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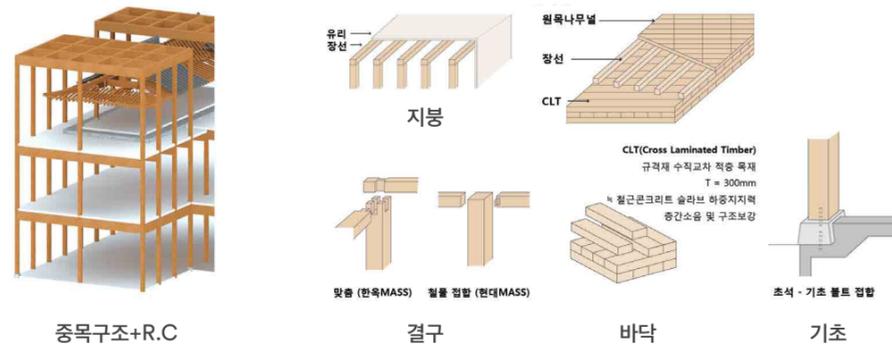
이러한 취지에서 계획된 한옥박물관은 북촌한옥마을 관광코스의 노드점인 정독도서관의 주차장 일대에 위치한다. 주요 컨셉은 '허물다'로 1. 과거와 현재의 단절된 건축양식의 벽을 허물고 2. 좋은 입지조건에 위치한 사이트의 용역을 제거하여 점층적 배치기법을 사용해 사이트의 물리적 경계를 허문다. 3. 한옥의 공간적 요소 중 중의적공간(회색공간)을 사용하여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전체적인 모습은 북촌에 많이 있는 'ㄷ'자 한옥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한옥 전시를 위한 1:1스케일의 4~5칸 규모의 한옥 매스가 들어가게 된다. 이 한옥매스에서는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한옥의 외관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구들, 지붕 속, 단면부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한옥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 그 외의 전시실에서는 한옥의 역사, 개념, 구조, 공구, 신기술, 유형과 용도 등을 전시하고 진입마당과 중정 후정을 통하여 한옥의 정원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실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이 한옥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어디에서나 한옥을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에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여 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입면에서는 한옥의 입면 요소를 사용하였다.

허물다.
보고 만지다.
느끼다

이보람
김지운
권나은
정예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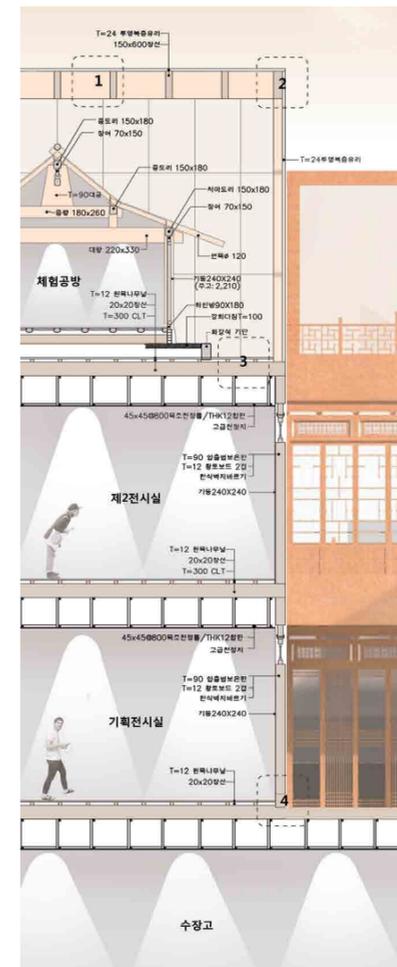
구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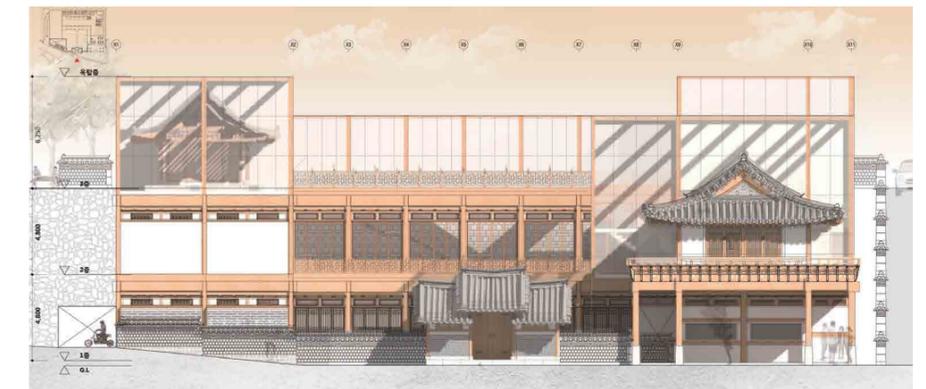
점차 한옥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도 확대가 되면서 한옥에 대한 지식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옥을 일반인들에게 알려려면 내용물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옥 박물관으로 나타나야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박물관이 있으므로써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축박물관과 한옥박물관이 없는 실정이다. (은평 한옥마을에 한옥박물관이 이제 생길예정) 원래는 건축박물관 내에 한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함께 즐겨야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나라 건축이 발전하면서 한옥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개별적, 전문적인 체험위주의 박물관이 생겨야 한다.

단면도



입면도



내부 모습



계획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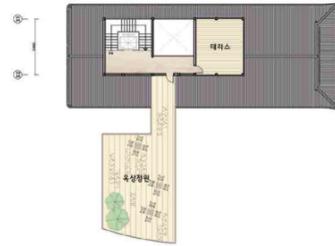
나랏말싸미 등극에 달아

이보람
서영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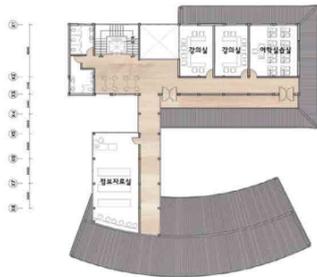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관광 이상의 외국인들의 장기방문이 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언어를 공부하는 어학당은 단순히 어학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을 바로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국 사절단을 만드는 셈이다. 따라서 어학당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단순히 어학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어학당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힌 한국어학당을, 오래전부터 문화와 교육의 장이었던 서촌에 만들어보고자 한다. 외국인에게는 더 없이 한국적인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한글을 배우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만을 위한 어학당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인 정자와 관광객들을 위한 한글박물관 등을 더함으로써 교육기관을 넘어서서 한글을 알리고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보았다. 도심 속 어학당은 기존의 단층한옥을 겹겹이 위로 쌓아 올림으로써, 기존의 수평적 공간들의 수직적으로 재해석된 공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입면도 및 단면도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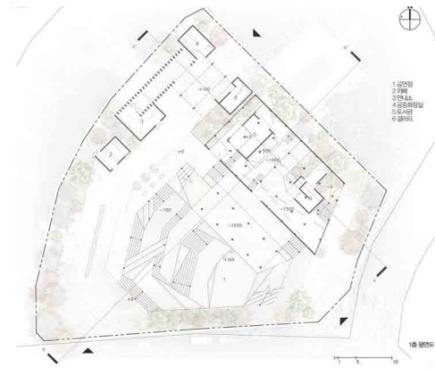


너와 나의 연결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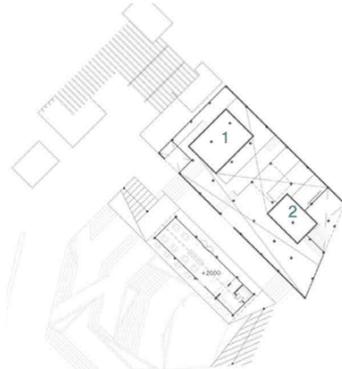
장은준
이혜인

평면도

1층



2층



단면도



A-A' 단면도



B-B' 단면도

대지위치 서울 중로구 세종로 76-2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지역지구 도시경관 지구
대지면적 8948m²

한옥이 공공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한옥은 예로부터 주거위주의 건축이었고 현재 많은 한옥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 주거에 그치고 있다. 한옥이 공공건축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재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한옥을 느낀다”고 한다. 이 말에 우리는 사람들이 한옥을 온전히 한옥 자체로 느끼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한옥을 일종의 오브제로서 바라보거나, 마루나 대청에 앉아 자연을 느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옥은 바라보거나, 내부에 들어가야만 한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옥은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그 차이를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방법을 제시한다.

장소 선정 이유

한옥이 공공시설로 이용될 때,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열린 곳으로 선정했다.



계획부분 입선

마당, 칸, 자연의 순환

채지훈
최미례



현대사회의 건축물들은 콘크리트의 딱딱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서로간의 소통이 부재한 채로 자신만의 바쁜 삶을 살아 가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계획 부지로 선정된 곳은 전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이다.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잘 보존된 약 700여 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 생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매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곳은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이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라북도 대표 터미널로 많은 버스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전주 특유의 느낌 보다는 오히려 초라한 터미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물로 터미널을 들 수 있는데 도시 이미지를 깎아내린 셈이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노후화가 대두 되면서 결국 2007년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 어두웠던 실내가 밝아지고, 좁았던 승강장이 깔끔하게 정비되기는 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지고 있던 외관, 주변 환경 등의 원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리모델링'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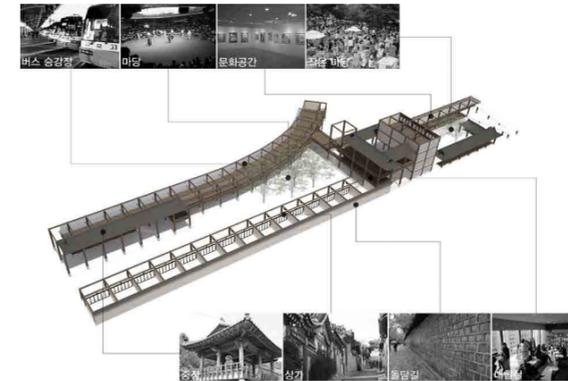
배치도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옥의 요소가 가장 필요한 공공건축물은 바로 전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이라고 생각한다. 터미널은 한옥의 요소가 들어가기 적합하다. 마당의 넓고 가변적인 공간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고, 칸의 간결함은 터미널 내의 복잡한 상가를 통일 시켜주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한옥의 삶 방식은 삭막해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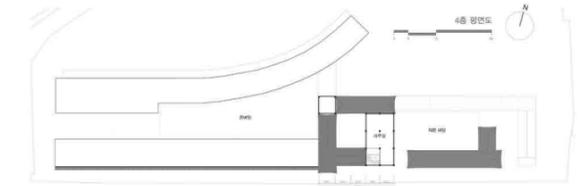
한옥은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의 삶의 방식과는 대조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공공시설물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은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각인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특히 터미널은 그 용도로 가장 적합하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계획안은 한옥과 우리 삶에 느림이라는 작은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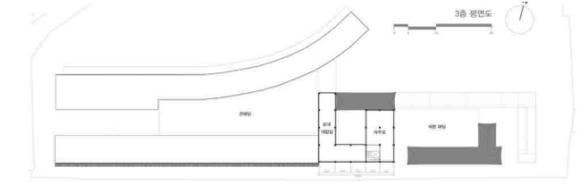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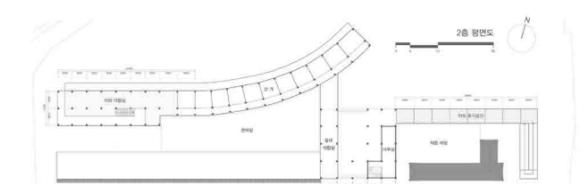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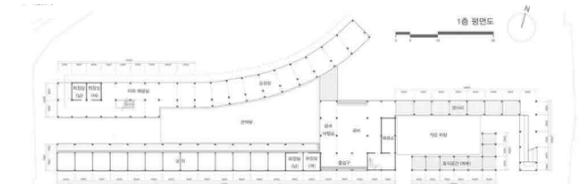
3층



2층



1층



계획부문 입선

맨발路(로) 편한家(가)

김도현
강창웅
고대은
이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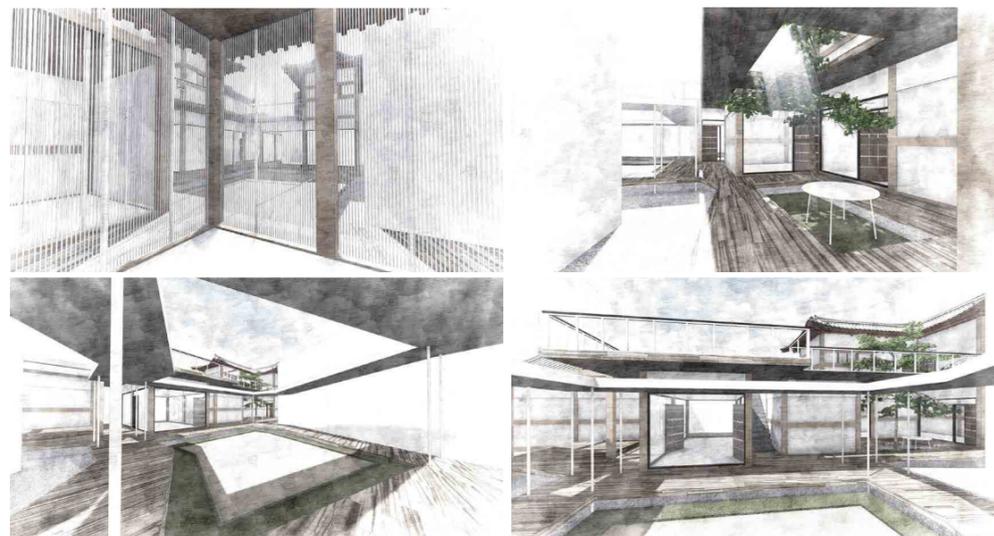
단면도



평면도



투시도



속담에 '구두수선공의 아이들이 맨발로 다닌다'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물건이 마땅히 있음직한 곳에 오히려 많지 못하거나 없는 일이 많다는 말이지만, '구두수선공의 아이들 역시 어느 누구처럼 맨발이 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신발을 신고는 편안한 휴식이 어렵다. 한옥에서 좌식 생활이 자리 잡는 데에는 맨발이 주는 편안함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대변되는 차가운 현대건축물 사이에서 공공건축물로서 한옥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찾아본다. 도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차가운 현대 건축의 물결 속에서 한옥의 편안함은 누구나 편하게 찾게 하고, 한옥의 친근함은 모두가 주체가 되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든다. 인간다움의 회복에서 한옥은 비로소 공공성(公共性)을 갖는다.

'맨발路(로) 편한家(가)'는 서촌(누하동 29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차가운 도시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외부인들이 함께하는 공방 겸 게스트하우스이다.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외부인들만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주민이, 바로 옆집 사람들이 놀러 와서 함께하는 공방과 도심 속 한옥을 찾는 외부인들의 쉼터인 게스트하우스가 주된 기능이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을 가진 카페, 공동주방, 갤러리를 계획한다. 이들은 공방과 게스트하우스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섞이고 마주치게 한다.

이에 더해 '맨발路(로) 편한家(가)'는 자연스럽게 맨발로 거닐 수 있는 툇마루, 누, 마당, 그리고 회랑공간을 제안한다. 이들은 이질적 프로그램의 분리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엿보고 스킨십 하며 안전한 한옥의 정서를 만끽하게 한다. 맨발로 걷는 마루에서 느끼는 나무의 굽고 서늘한 감촉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극과는 확실히 다르다. 맨발로 자유롭게 거닐고 향유하며 '맨발路(로) 편한家(가)'는 마을의 평상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된다. 목재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흙으로 빚어 만든 기와에서 느껴지는 순수함 속에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부 공간



컨셉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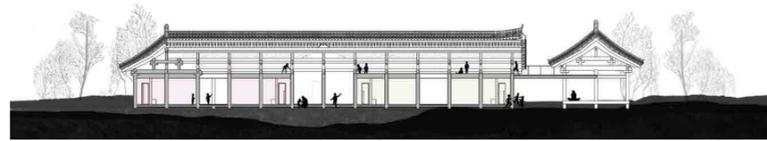
계획부분 입선

소온누리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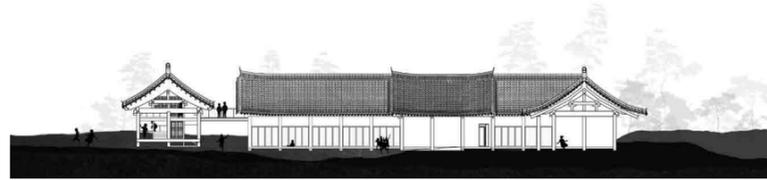
조형진
하보경
김영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교회 부지
대지면적 1,952.3m²
건폐율 32.52%
용적률 5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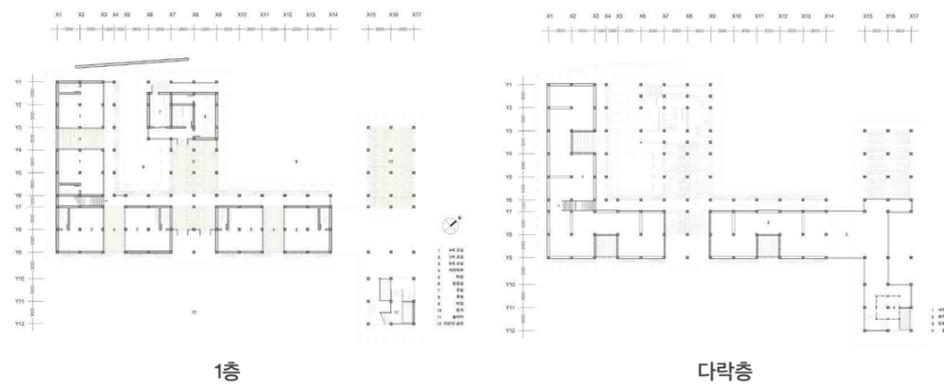
단면도



입면도



평면도



한옥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은 한옥에 담긴 의미에 있을 것이다. 주변을 아우르고 조화롭게 이어주는 한옥은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삭막해진 도시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곳에 계획된 이 한옥 유치원은 다른 대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한옥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옥의 발전과 우리 삶에서의 한옥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것이다.

이 대지에서 한옥 유치원은 주변의 아파트 단지, 앞 쪽의 어린이 공원, 옆에 들어설 어린이 도서관의 경계에 세워지게 된다. 한옥은 이들의 경계에 서서 대립적이었던 이들의 경계를 허물어 부족한 공간을 확장시키고 서로를 연결해서 더 풍부한 가치를 창조한다.

다락에서는 자연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으며 마당에서는 친구들, 아파트 사람들 및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파빌리온에서는 옆의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와 만나게 되며 열린 놀이터를 통해 앞의 풍경과 유치원 내부까지 볼 수 있다. 또한 앞 쪽의 정자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열려있어 유치원, 아파트 주민들,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함께 만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렇듯 주변과의 경계를 허물고 열려있는 소온누리 유치원은 이들을 이어줌으로써 작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온누리 유치원을 이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사회에서 한옥의 가치를 느낄 것이다.



계획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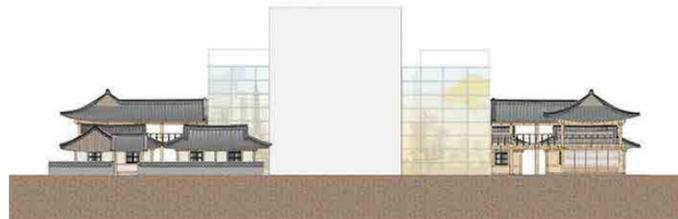
자경;
비추어보다,
되돌아보다

정육찬
김승훈
최진원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72,73,92일대
대지면적 970.9m²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용도 문화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614.8m²
연면적 868.1m²
건폐율 38.7%
용적율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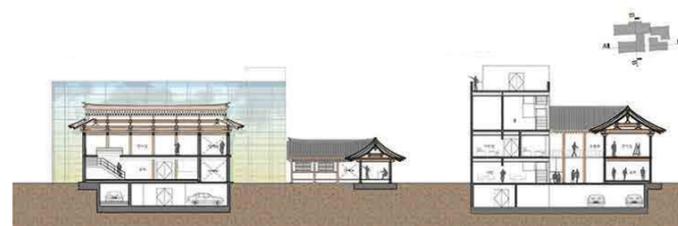
측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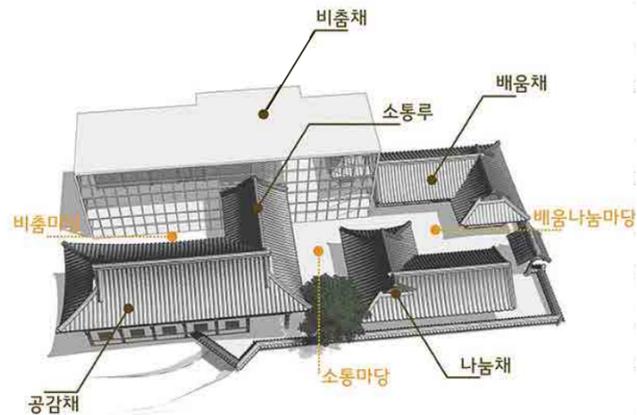
단면도



A-A' 단면도

B-B' 단면도

공간 구성



문화 중심길에 가려진 시민의 휴식공간, 나뉘어진 것들에 대해 생각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심속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같은 공간속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단절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서로 마주보는' 소통공간을 제시해보려 한다.

구도심 내 상권의 발전함에 따라 성안길의 양옆으로 상업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변화로 인해 성안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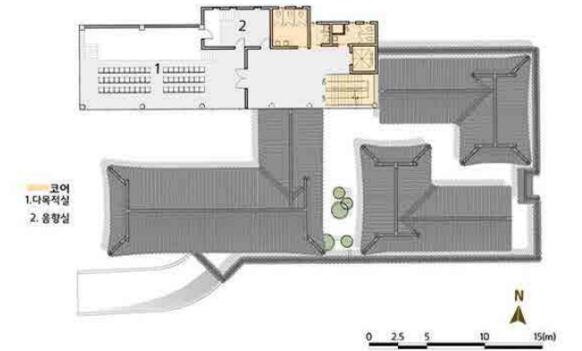
이에 반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던 중앙공원은 상업건물의 등 뒤로 가려져 점차 시민들의 휴식공간에서 잊히지게 되었고, 현재는 노인들만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서로 단절되어 소통할 수 없는 두 공간을 해결함에 있어 중앙공원과 성안길 사용자간의 소통을 제시하였고, 누구의 기억 속이나 자리잡고 있는 한옥이라는 우리의 건축을 수용하여, 노인들에게 추억 속 한옥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젊은층에게는 한옥이라는 우리 건축을 전해주어 추억속의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며 모두가 즐기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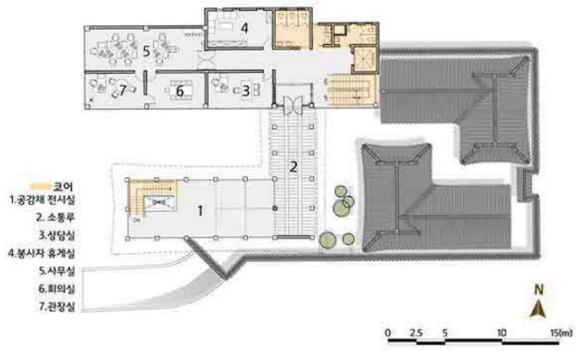
평면도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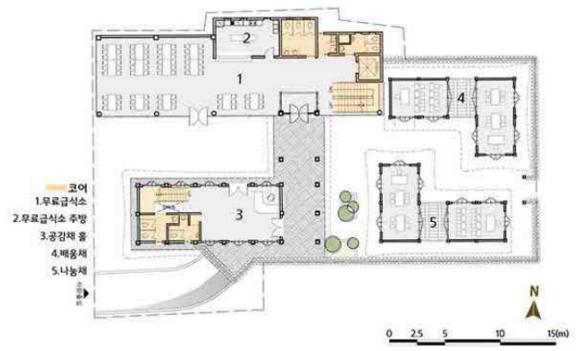
코어
1.다목적실
2. 휴향실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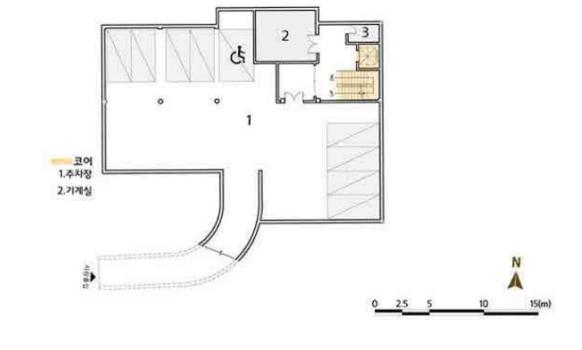
코어
1.공감채 전시실
2. 소풍루
3.상당실
4.봉사자 휴게실
5.사무실
6.회의실
7.관람실

1층



코어
1.무료급식소
2.무료급식소 주방
3.공감채 홀
4.배움채
5.나눔채

지하1층



코어
1.주차장
2.기계실

계획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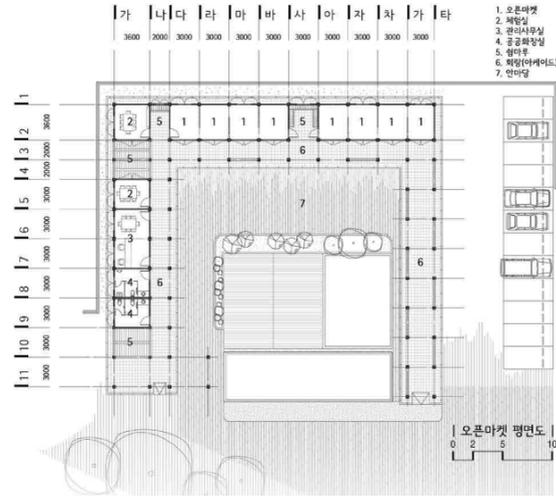
한옥케이드 Han-ok(ar)cade

김성운

- 대지위치** 인사동 문화의 거리
L:700m
W:약12m전후
- 계획범위** 남인사마당을 시작으로
길이 약 265m
폭 약15m
- 프로그램** 오픈마켓, 안내센터,
행사마루, 한옥케이드
- 높이** 오픈마켓 6m
안내센터 5m
한옥케이드 3.6m
- 구조** 한식목구조
+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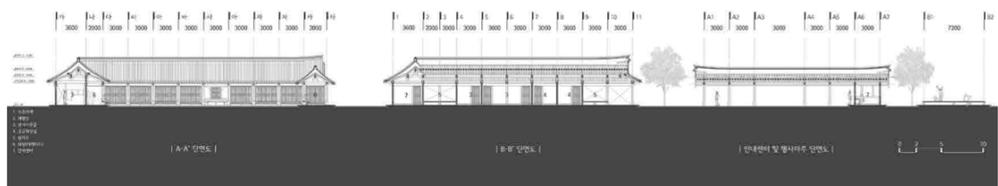
오픈마켓 평면도



공공성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공간들로 채워져 있다. 극단적이지만,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구분 한다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적절한 조율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대표되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한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입(접목)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시설이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공통의 목적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다양한 공간들을 연결해 주며, 불특정한 다수의 다양한 목적성이 혼재된 공간으로 길(街路)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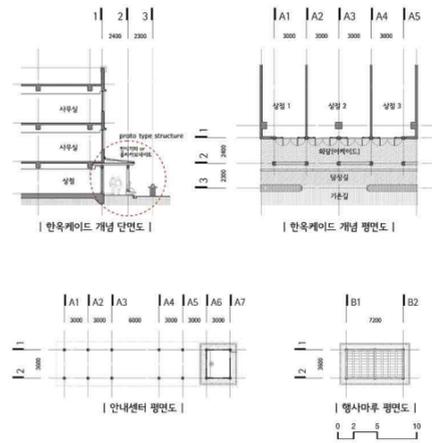
계획대지의 현황 및 분석, 아이디어

계획대지는 외국인들에게 many's alley로 알려진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 길게 자리잡고 있는 상가와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남인사마당과 인사문화마당이 되겠다. 우리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사동은 도시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전쟁과 산업사회를 거치며,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에 면한 상가주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도시의 팽창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주택의 기능은 빠지게 되고 상점과 업무시설이 그 자리를 매우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옥들은 가로에 면한 상가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 또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뒤쪽에 밀려있는 한옥이 상가의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처마의 기능과 회랑이라는 공간을 조합하여 한옥으로 된 아케이드를 계획하였다.

계획의 주안점

거리의 특성상 입점해 있는 프로그램(용도)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언제든지 누구나 만들고, 전시 및 판매,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계획하여 공간적으로 한옥케이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끝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남인사 마당은 높이가 다른 담장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인접도로와 광장의 기능을 분리하였고, 진입로에 안내센터와 게이트를 계획하여 인지성을 극대화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케이드, 안내센터, 행사마루 도면



결론적으로 근현대 건축물과 한옥이 중첩된 한옥아케이드 계획은 변화된 현대도시 안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능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과 인사동의 정체성을 재조명하여 한옥의 활용성 및 홍보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한옥으로서 공공성이라는 화두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계획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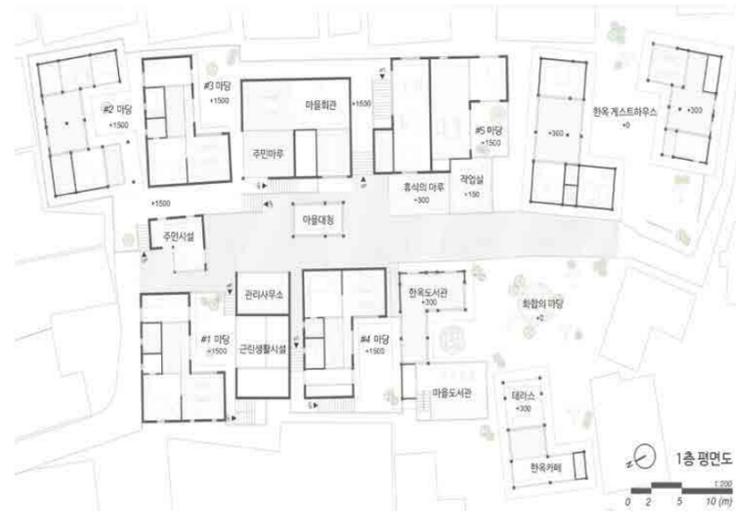
한옥, 도시에서 살아남다

배태준
이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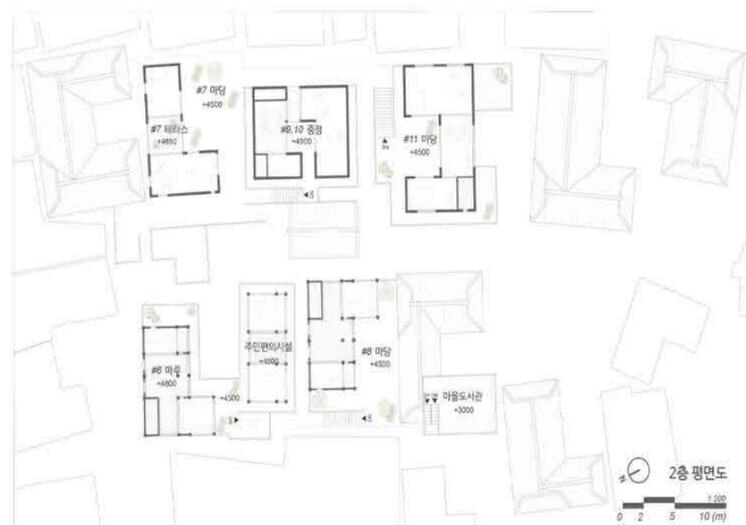
-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일대
- 대지면적 2,397m²
- 건축면적 1,541m²
- 연면적 2,012m²
- 건폐율 64.28%
- 용적률 83.93%
- 건축구조 RC조 + 전통 목구조
- 단위세대 11세대
- 건축규모 3층 이하

평면도

1층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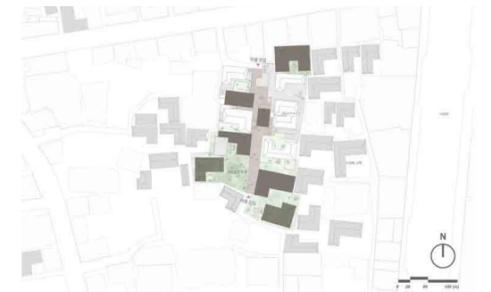


한국의 전통 주거형식은 큰 변화없이 지속되다 193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위기를 맞게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 주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전통 주거양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주거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한옥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해체되고 파괴되는 양상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옥은 근대화의 개발과정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채 도시속 불량주거지역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도시에 위치한 한옥밀집 전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한옥에 대해,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 즉 한옥이 주변 건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전통주거지의 현실적인 개발과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치도



공간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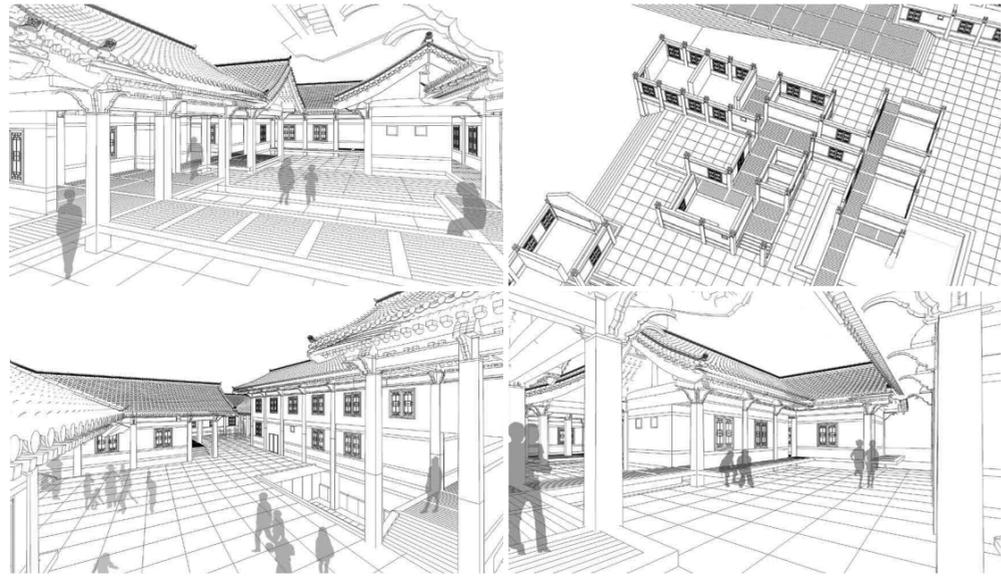


계획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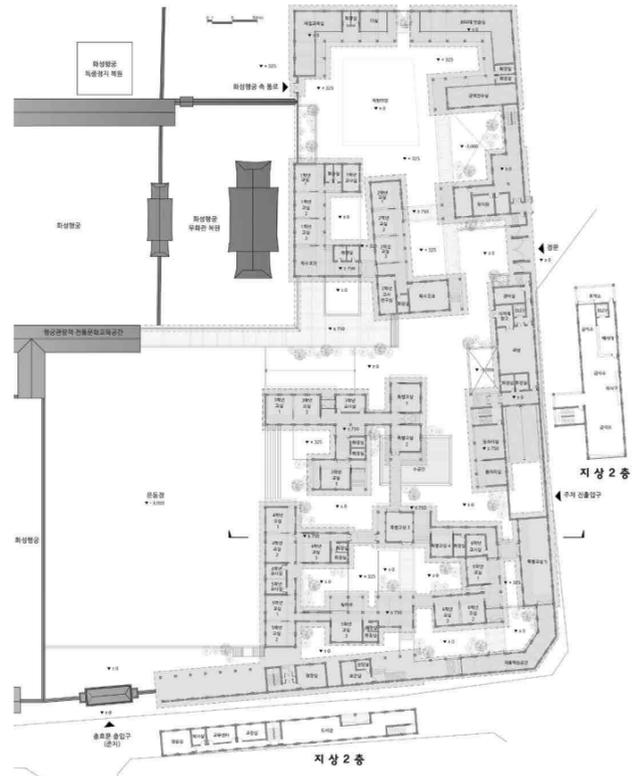
해포이웃

김대천
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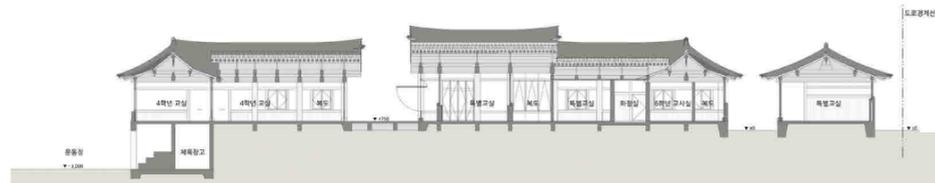
-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46 외
신평초등학교
일원초등학교
-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11,518m²
건축면적 3,053.53m²
연면적 5,343.68m²
- 규모 지하1층, 지상 2층
- 구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 건폐율 26.51%
용적률 46.39%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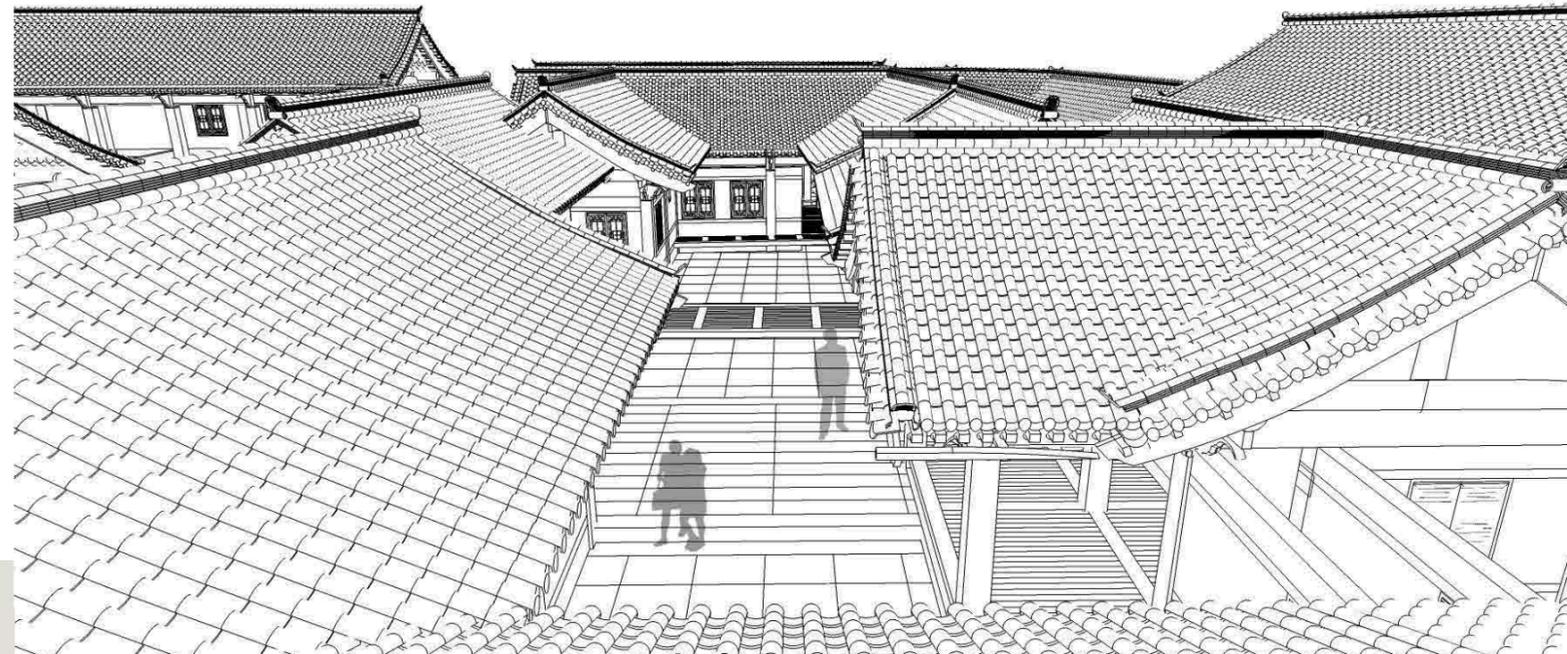
단면도



우리의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 주변엔 온통 낯선 것들이다. 심지어 전통한옥 마저도 새롭다. 수원시는 우화관 복원을 계획하여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10년이 훌쩍 넘는 신평초등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본래 우화관을 개조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버텨낸 신평초교가 복원과정에서 폐교되기 때문이다. 200년 전 전통이 100년 이웃을 밀어내는 것이다.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보존되어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오랜 이웃을 저 멀리 옮겨 버리면서까지 낯선 것을 놓는 것이 과연 문화의 올바른 계승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진정 누구나 누리기 위한 방법이 명승고적으로 이웃을 몰아내는 일인가. 과거 낙남헌 앞들은 담장이 아닌 이동식 울타리로 감싸여 언제든지 백성들과 만나 소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특정사람들의 전유물을 열어버리고 공공에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화성행궁이 복원되고 낙남헌과 맞닿은 신평초등학교는 “들어가지 마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라고 읽히는 “아무나”를 위한 전유물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창시절을, 주민들에게는 이웃의 학교, 한데 모여 배우는 장소(사회복지시설)가 되는 “누구나”누리는 한옥이 될 것이다.

투시도



계획부분 입선

驛 같은 한옥

문건주
정은아
이상훈
김보경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보수동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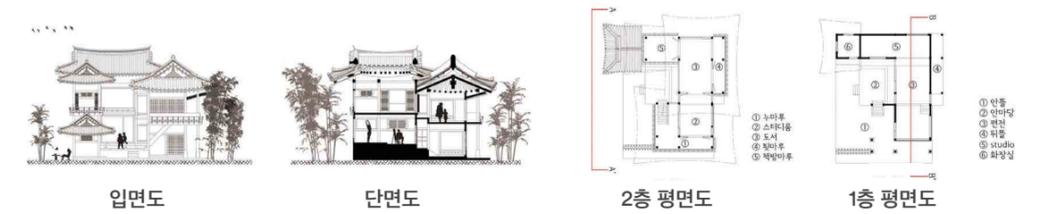
- 1 비원편전
- 2 낭중지추
- 3 산아래 마당집
- 4 City Spot

공간 컨셉

- 1 각각의 테마가 있는 골목에 인접한 곳으로 협소한 자투리땅, 모퉁이땅, 낙후주택지를 선정
- 2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지점들의 산발적 확산
- 3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물리적 네트워크 공간에 한옥 공간특성을 적용. 즉, 분산공유형 공간(Co-working Space)을 통해 디지털 유목민의 네트워크적 태도와 한옥의 공간특성을 융합한 시설을 확보하고, 공공의 연결망 구축.

건물명	비원편전-비밀의 정원에서 책을 펴다	낭중지추-도시사막 속 한옥	산아래 마당집	City Spot
대상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11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3-1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24번길 4-4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49(도로)
대상면적	135.36m ²	84.36m ²	233.50m ²	153.30m ²
특징	부산의 원도심과 연결되는 길의 연장선상의 골목이며 보수동 책방골목 속의 숨겨진 정원	활기차지만 쉴 곳 없는 남포동 죽발골목 속에 스킵 플로어를 적용한 중정형 휴식공간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용두산 공원에 밀접해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지점에 조각상 대신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공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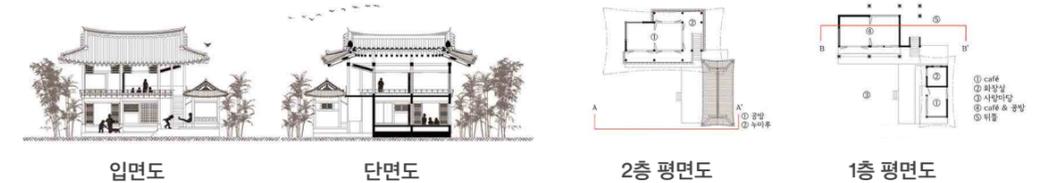
비원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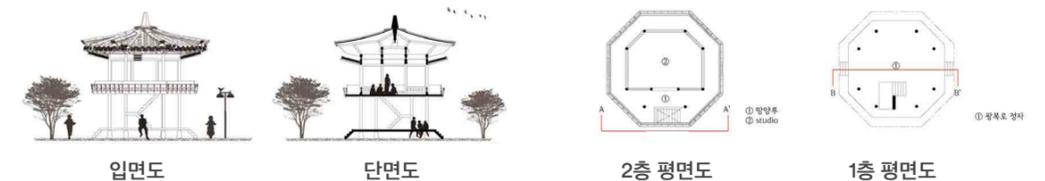
낭중지추



산아래 마당집



City Spot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화 | 044.201.3783

팩스 | 044.201.5574

인쇄 | 2014년 11월 11일

발행 | 2014년 11월 1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501-1호

전화 | 031.478.9600

팩스 | 031.478.9614

이메일 | hanok@auri.re.kr

홈페이지 | <http://hanokdb.kr>

2014 ©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